

碩士學位論文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의  
출하결정요인 분석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業經濟學科

丁 元 泰

2008 年 2 月

#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의 출하결정요인 분석

指導教授 劉 永 鳳

丁 元 泰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丁元泰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_

委 員\_\_\_\_\_印\_

委 員\_\_\_\_\_印\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2月

An Analysis of Shipment Decision Factor  
of JCGAC APC Using-Organization

Won-Tae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Bong 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2008. 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Hyun Kong-Nam,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Kang Dong-il,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Yu Young-Bong,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February. 2008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目 次

<b>I. 서 론</b> .....	<b>1</b>
1. 문제의 제기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4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5
4. 논문의 구성 .....	6
<b>II. 감귤농협 APC 운영실태 분석</b> .....	<b>8</b>
1. 감귤농협APC의 경제학적 위치 .....	8
2. 감귤농협APC의 시설 및 조직 .....	11
3. 감귤농협APC의 운영실태 분석 .....	14
4.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 .....	23
5. 요약 .....	33
<b>III. 농가의 감귤농협 APC 이용실태 분석</b> .....	<b>36</b>
1. 농가의 APC 이용실태 분석 .....	36
2. 이용조직의 이용실태분석 .....	43
3. 요약 .....	54
<b>IV.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의 출하행위 분석</b> .....	<b>59</b>
1. APC이용조직 회원의 출하요인 검토 .....	59
2. 이용조직 회원 중 감귤농협APC 이용농가 설문분석 .....	61
3. APC 이용조직의 이용율 결정요인 검증 .....	67
4. 결과해석 .....	71
5. 요약 .....	72

V. 결 론 .....	75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음미 .....	7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83
[참 고 문 헌] .....	85
[부      록] .....	87



## 표 목차

<표Ⅱ-1> 감귤선과장의 유형분류와 그 특징 .....	10
<표Ⅱ-2> 감귤농협 APC 설립 고정투자 규모 .....	11
<표Ⅱ-3> 감귤농협 APC의 자금조달현황 .....	12
<표Ⅱ-4> 감귤농협 APC의 3개년 판매사업량 .....	15
<표Ⅱ-5> 감귤농협 APC의 판매사업량 중 수탁과 매취구분비교 .....	16
<표Ⅱ-6> 감귤농협 APC의 수탁과 매취단가 비교 .....	17
<표Ⅱ-7> 감귤농협 APC 3개년도 손익현황 .....	19
<표Ⅱ-8> 감귤농협 APC의 3개년 수익현황 .....	20
<표Ⅱ-9> 감귤농협 APC 매취사업 월별 수익현황 .....	22
<표Ⅱ-10> 감귤농협 APC의 3개년 비용현황 .....	22
<표Ⅱ-11> 감귤농협 APC의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연산별 출하현황 .....	25
<표Ⅱ-12> 감귤농협 APC의 불로초(노지감귤)의 출하처별 출하현황 .....	26
<표Ⅱ-13> 감귤농협 APC의 궤림元(노지감귤)의 출하처별 출하현황 .....	26
<표Ⅱ-14> 감귤농협APC의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포장단위별 출하물량 .....	27
<표Ⅱ-15> 규격에 따른 기준점수 .....	28
<표Ⅱ-16> 당도 및 산도 점수표 .....	29
<표Ⅱ-17> 감귤농협APC 공동계산제 예시 .....	30
<표Ⅲ-1> 감귤농협APC 년도별·품목별 이용자 현황 .....	36
<표Ⅲ-2> 감귤농협 APC 이용자의 평균출하중량 및 출하금액 .....	38
<표Ⅲ-3>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 분석 .....	40
<표Ⅲ-4> 감귤농협 APC 이용자의 연령분포현황 .....	41
<표Ⅲ-5> 감귤농협 APC 이용자와 노지감귤 공동브랜드출하자 .....	42
<표Ⅲ-6> ‘불로초협의회’, 감귤농협 조합원 및 감귤농가 연령별 분포 .....	44
<표Ⅲ-7> ‘불로초협의회’ 회원과 서귀포시 감귤재배농가 재배규모별 분포비교 .....	45
<표Ⅲ-8> ‘불로초협의회’(이용조직)회원의 감귤농협 APC 이용현황 .....	46

<표Ⅲ-9> 전체이용자와 이용조직의 연산별 등급별 노지감귤 출하량비율 .....	47
<표Ⅲ-10> 감귤농협APC 3개년도('03,'04,'05년도) 이용자 현황 .....	48
<표Ⅲ-11> '불로초협의회' 회원 이용형태별 연령분포 .....	49
<표Ⅲ-12> '불로초협의회' 회원 이용형태별 재배규모 분포 .....	51
<표Ⅲ-13> 불로초협의회원 중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자 분석 .....	52
<표Ⅲ-14> 2005년산 불로초협의회원 노지감귤 등급별 경락단가비교 .....	53
<표Ⅳ-1> 조사대상 개인적 특성 이용년수구분 .....	62
<표Ⅳ-2> 공동브랜드사업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	64
<표Ⅳ-3> APC출하 전, 후 판매처 .....	65
<표Ⅳ-4> APC 이용동기 .....	65
<표Ⅳ-5> 출하계속사유 .....	66
<표Ⅳ-6> APC 이용중단 사유 .....	67
<표Ⅳ-7> APC이용을 결정 회귀추정 결과 .....	70
<표Ⅳ-8> 상관계수 .....	71

## 그림목차

<그림Ⅱ-1> 3개년도 월별 판매사업 실적 비교 .....	18
<그림Ⅱ-2> 감귤농협 APC의 03년도 항목별 수익비율 .....	21
<그림Ⅱ-3> 감귤농협 APC의 04년도 항목별 수익비율 .....	21
<그림Ⅲ-1> 감귤농협 APC의 3개년도 이용자 현황 .....	37
<그림Ⅲ-2> 감귤농협 APC의 조합원 이용자 현황 .....	37
<그림Ⅲ-3> 감귤농협 APC 년도별 수탁노지감귤 농가수취비율의 변화 .....	39
<그림Ⅲ-4>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 분석 .....	40
<그림Ⅲ-5> 감귤농협 APC '블로초협의회'회원 연령별 분포 .....	43
<그림Ⅲ-6> '블로초협의회'(이용조직)회원의 감귤농협APC 이용현황 .....	47
<그림Ⅲ-7> 전체이용자와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이용자의 연령분포 비교 .....	50
<그림Ⅲ-8> 전체회원과 3개년연속이용회원의 재배규모별 비중 분포비교 .....	51

## ABSTRACT

In order to maximize the producer's negotiation power and to strengthen the farmer's benefits in the market through combining the small farming-centric Korean agricultural producers' economic situations by scaled distribution, the producing farmers must be combined in the new distribution organization 'APC. Also, when the products are treated, classified, merchandised and sold like one person's product, the actual market negotiation power can be shown.

For it, it will be necessary to identify major factors to be involv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oducing farmers will use APC and continue to use APC and how much the farmers will use. Also, APCs need to urgently arrange the suitable systems and contents.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and verify the shipment decision factor of citrus APC using organization members.

To achieve such purpose, Jeju Citrus Growers' Agricultural Cooperative(JCGAC)'s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Distribution APC 1) which has a transient facility and experimental operation style in the process that the farming unit-centric small citrus regrouping center system is changed into the large APC, that is the citrus distribution facility and the subject is changed was analyzed. Through the operating state analysis from 2003 to 2005, 3 years' users situation analysis, utilization state analysis of using organizing (Bulrocho association) and the survey analysis for members who had 3 years' open-field shipment performance among the organization member, main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citrus APC Using-organization's utilization rate were extracted, and then the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investment and open-field citrus cultivating area were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Such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APC utilization rate and the influence size was verified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finitely, it was analyzed that the brand success or the degree of quantity the most largely influenced the user's farm price. Also, it was estimate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 with the using farmer's cultivating area. Also, there was a certain correlation in the investment and age.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 the citrus APC utilization rate to be classified in this study i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Y). Also, four variables which actually affect or are likely to affect the utilization rate in Chapter 2, Chapter 3 and questionnaire analysis, the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investment, open-field cultivating area and area are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X1, X2, X3, X4). Then, they were verified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

As the result of verification, there was the statistically-significant value in X1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X2 (investment), and X3 (open-field citrus cultivating area).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significant value in X4 (age).

When the analysis result is expressed in regression equation, it is  $Y = 10.221 + 0.885X1 + 0.041X2 + (-3.381)X3$ .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investment and cultivating area w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affected the citrus APC utilization rate. The large effect was verified in order of the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the cultivating area and the investment.

Such verification result means that the high farm price is formed because the brand is established, an inspection method by random sampling as the brand judgment criteria is adopted, and there is almost no force in case of the used structure. Also, it means that the open-field citrus utilization rate of

APC Using-organization is the most largely influenced by the brand production shipment rate in APC that any citrus farmer can use, and the utilization rate is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ultivating area because the inspection method by sampling requires a maturity and classified harvesting. It is interpreted that the farmer with big cultivating area shows the low utilization rate because the lack of manpower is not solved due to a limitation of harvesting period. Next, it means that the investment which is the expression of association absorption is a little bit influenced.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농산물 생산자들은 1995년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수입개방과 최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및 그 추진 등으로 세계 각국의 선진화된 유통체들과 한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양상은 갈수록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출현 및 확장 등으로 인한 농산물소비 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출하체제에 머물러 있는 농산물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 지역 독점적 지위와 계절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제주감귤은 오렌지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국내 타과일의 생산의 년중화, 생산의 확대 등으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감귤의 출하체제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통출하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과거 독점적 상황에서의 출하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감귤 이용조직의 형태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출하되는 감귤은 판매활동을 위한 공동출하가 아니라, 단순히 계통조직을 경유하여 도매시장 등지로 개별 농가단위로 출하되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생산농가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과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매행위와 조직적인 시장접근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귤의 통합적인 전략적 마케팅이 수행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감귤전체에 대한 판매활동이나 수요 창출 등 적극적인 시장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소농중심인 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확대하는 방법은 생산농가들이 새로운 유통조직으로 결합되고, 농업생산물이 집결되어 한사람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고, 분류되고, 상품화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규모화된 유통 행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통체제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

1) 현공남·유영봉(2004), p522 인용

정당국은 산지유통개혁 방법의 하나로 산지 APC(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sup>2)</sup>

제주지역에서도 대형 감귤 선과장 시설로서 제주감귤농협이 2002년 APC(감귤농협 제1APC)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거점APC(감귤농협 제2APC)를 추가로 건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제주감귤농협이 거점 APC(제3APC)를 추가 건립 예정이며,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도 거점APC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체들이 선과장 현대화 또는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농협들도 중형 규모의 감귤APC 건립이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보아 향후 제주감귤의 유통의 중심축은 APC 또는 거점 APC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되고 운영되어지는 감귤 APC 또는 거점APC들의 목표는 기존의 낡은 유통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확립을 통하여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거대한 선과장을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지의 시장교섭력 강화라는 목표는 시설의 현대화 또는 규모화로 달성되기보다는 물량의 규모화, 상품화 및 마케팅에 그 핵심이 있다할 것이다. 시설의 문제는 집결된 생산물을 상품화하는 수단 또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3)</sup> 즉 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는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시장교섭력 강화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APC 또는 거점APC가 하드웨어라면, 공동브랜드사업, 공동판매, 공동계산 등의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결합되어 시행될 때 비로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구체적 실행에

2) 1992년부터 정부는 청과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산지에서 표준규격품 출하를 유도하고, 집하, 세척, 선별, 포장, 예냉,저장, 가공 등 유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 건립계획에 의거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의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 정부는 포장센터의 역할을 선별포장에서 벗어나 공동규격출하, 유통정보 수집전파, 브랜드 개발 등 산지의 종합적인 유통거점시설로 개념을 확대해 명칭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로 변경하였으며, 건설목표로 기존의 160개소에서 2002년 2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 한철레 FTA체결 이후 FTA지원기금이 마련되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유통공사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산지유통센터가 317개소(정부지정 236개소, 기타 산지유통센터 8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2007년 11월 기준 농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준공 4개소, 건설중 7개소, '07년 선정 4개소로 총 15개가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고바람.

3) 농림부(2005) p17 "APC 구조조정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선 조직화 후 시설지원 원칙준수로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을 강조하고 있음.

있어서 생산의 기초이며, 유통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농가들이 새로운 유통질서로 편입되거나, 옮겨와 조직화되어질 때, 그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PC는 투자주체, 규모,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생적인 작목반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작목반 출하 또는 상인판매 등의 개별출하 행위를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새로운 유통조직으로 옮겨져 오거나, 개별출하행위에서 공동 판매행위로 전환하는 문제, 개별정산에서 공동계산으로의 전환문제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들이 APC를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용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이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때 관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와 내용들을 APC들이 시급히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논의와 추진과정들이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다보니, 제주도의 T 업체의 부도, 전라북도의 J 거점APC 부실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들 또한, APC의 건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 경영적 관점에서의 운영의 효율성 분석 등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되며, 정작 농산물 산지의 개혁 또는 개편의 주체인 생산농가들이 출하를 결정·지속하는 데 미치는 출하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APC 설립 운영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현장의 실천사례들이 풍부하게 분석되지 않고, 홍보 중심의 책자발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APC들의 운영의 활성화, 향후 건설될 거점APC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농산물 산지의 소비지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농가들의 APC 출하결정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생산농가들의 APC이용율을 높임과 아울러 조직화를 강화하는 방안마련과 정책실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할 것이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농산물 APC(산지유통센터) 및 거점 APC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관리적 관점에서 APC운영관리의 문제와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 둘째 APC건립의 타당성 분석과 최적 설치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셋째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APC운영을 비롯한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운영 관리적 관점에서의 논문들로는 농식품유통연구원(2000), 김창환(2001), 박철승(2003) 등이 있다. 농식품유통연구원(2000)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그간 산지유통센터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18개의 산지유통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주체의 조건, 운영관리실태, 원료조달방식, 판매 및 마케팅 실태,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분석으로 일본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의 수확 후 관리기술 등에 대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립타당성, 운영의 효율성 분석을 한 논문들로는 김정주(2004), 유효정(2005), 지역농업네트워크(2006), 고성보 외(2006) 등이 있다. 지역농업네트워크(2006)는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운영의 최적화, 효율화 관점에서 거점APC와 연계한 과일선선편이시설의 최적설치방안을 모색하였다.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APC운영을 비롯한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분석한 연구로는 황수철, 황의식(2001), 지역농업네트워크(2003), 전상호(2004) 등이 있다. 황수철, 황의식(2001)은 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원에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 경영, 규모의 불경제, 선진농가의 참여기피와 역선택의 문제, 조합원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지적하고 지역농협의 유통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격설정 방식 모색, 주요선진국의 협동조합 재편동향을 시장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리, 지역농협 유통사업의 가격설정체계를 분석

하고 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농협APC 이용조직 회원들의 출하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검증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귤생산농가들이 APC라는 유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이용 지속 또는 이용 중단 등의 행위와 이용률(개인별 출하량/개인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존의 작목반 중심의 전통적 선과장에서 현대적선과장(대형선과장)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과도기적 유통시설로서 감귤농협 APC(감귤농협 제1APC, 서귀포시 토평동)의 경제적 특징들을 음미하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과도기적 시설과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들도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감귤농협 APC를 통해 출하행위를 했던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분석과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의 구성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감귤농협 APC이용조직 회원의 출하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공간적으로는 2002년도에 서귀포시 토평동에 설립되어진 감귤농협 APC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생산농가의 출하행위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시기적으로는 가용한 출하실적 자료의 제한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운영상황과 이용실태 분석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감귤생산농가들이 APC시설을 통해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는 사회·정치적 요인, 재배 기술적 요인, 심리 문화적 요인 등 아주 복합적일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요인들로 국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감귤농협APC 이용조직의 출하결정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수행하도록 한다.

우선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특히 감귤농협 APC의 2003~2005년도 결산보고서와 각종 자료 및 제도의 검토, 운영관리자들과의 면접들을 통해 운영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설립과정과 운영과정, 운영제도들이 APC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다음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감귤농협 APC를 통해 출하행위를 한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분석과 감귤농협APC의 이용조직인 ‘블로초협의회’의 초기 가입원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조직 분석, 이용조직 회원들의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제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 이용조직 회원들의 출하결정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수행한다.

그리고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인 ‘블로초협의회’ 회원 중 분석대상기간 3개년 중 1회 이상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회원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전화설문을 통한 조사와 그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위의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감귤농협APC 이용조직의 이용율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검토, 추출한 후, 감귤출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감귤농협APC 이용조직회원의 APC이용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용율에 미치는 요인(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 검증하도록 한다.

#### 4. 논문의 구성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체계에 의하여 논문을 구성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감귤농협 APC의 시설 및 조직, 관리 및 운영조직체계, 상품화 체계 및 정산체계 등을 살펴보고, 3개년도의 운영실태 분석을 그 특징과 운영상

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APC이용조직을 포함한 농가들의 APC이용형태 및 이용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황과 운영제도들이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3개년도 동안 APC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감귤농협 APC의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 회원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 정도를 제표분석 등을 통하여 추론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되어지고 탐색되어진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불로초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감귤농협 APC이용조직 회원의 이용율(Y)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X)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감귤농협 APC이용조직의 출하결정행위(이용율)에 미치는 요인(독립변수들)들의 영향의 유무, 방향, 영향의 크기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에서 검증되어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시사점 등을 정리, 제시할 것이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 감귤농협 APC 운영실태 분석

2장에서는 본 논문의 공간적 대상인 감귤농협 APC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실태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운영제도, 운영실적 등이 APC이용 조직원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요인 추출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은 감귤선과장의 기능과 역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감귤선과장의 유형을 구분해 봄으로써, 연구 대상인 감귤농협APC의 경제학적 의미를 음미해보도록 한다.

이어서 감귤농협APC의 시설 및 조직운영상황 등을 살펴보고, 제표분석 등을 통하여 '03년도~ '05년도를 기준(3개년도)으로 하여 판매 및 비용실적을 포함한 손익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용조직 회원 및 이용자들의 출하행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론과 탐색을 실시한다.

### 1. 감귤농협APC의 경제학적 위치

#### 1) 감귤선과장의 성격변화

선과장(選果場)은 수확되어진 과일을 집하여 선별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따라서 감귤선과장은 수확되어진 감귤을 집하여 선별하는 기능을 1차적으로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기능으로 인하여 선별장으로 불리우기도 한다.<sup>4)</sup> 선별 방법은 제주감귤이 상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손선별(수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74년도에서 75년도 사이에 선별기계가 도입되면서 기계

4) 선과장은 선별장, 패킹하우스(packing house), APC, 대형선과장, 거점산지 APC 등으로 불리우나, 본질적으로는 수집, 선별, 포장이라는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규모, 전문성, 정산방식을 포함한 운영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명명되고 있음.

에 의한 선별작업이 주를 이루었다.<sup>5)</sup> 아울러 수확된 감귤의 선별기능에 포장기능, 상품화기능 등이 더해져서 2000년도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에 8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up>6)</sup>

이러한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시설규모(선별장의 면적), 선과물량, 선과기계의 정밀도와 선과장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기능과 역할 이외에도 감귤원지(과수원)관리, 고품질 생산기술의 보급 및 통제, 수확관리, 브랜드의 개발 및 관리, 마케팅 기능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 유통, 소비를 수직계열화하는 역할을 선과장이 중심이 되어 펼쳐나가고 있다. 향후 제주감귤 선과장의 변화의 방향은 이러한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모델로 하여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2) 감귤선과장의 유형별 특징과 감귤농협APC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선진국 형태의 생산에서,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선과장을 현대적 선과장이라고 규정한다면, 현재까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감귤 선과장들은 전통적 선과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Ⅱ-1>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전통적 선과장과 현대적 선과장의 유형적 특징을 구별하여 본 것이다. 전통적 선과장은 공동선과, 개별출하, 개별정산방식을

5)① 제주감귤농협, “제1절 연대별 사업의 종합현황”, 『제주감귤농협40년사』, 2001, p208

“1975년에 소형선과기 4대를 도입하였으며, 1976년에 중형선과기 7대를 구입하고 집하창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일 5백60톤의 물량을 선과 처리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컨테이너 운송체계 개발로 감귤수송에 일대혁신을 기하게 되었다.”

② 제주감귤농협, “회고록-김수광 前전무-”, 『제주감귤농협40년사』, 2001, p606

“1960년대 손선별로 인한 선과작업의 비능률화를 극복하고 선과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70년대 초반에 고치조씨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5단계 구분의 소형선과기를 인수, 동흥선과장에 설치하여 선과를 실시하였으나 작업속도가 느리고 처리물량이 많아지면서 효율성이 저하되자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연구·노력한 끝에 한국화학장치로부터 일본가 기술제휴한 중형선과기 9대를 도입하게 된 것이 근대적인 선과작업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제주도내의 단위농협에서는 이러한 선과가 감귤상자 등에 관심조차 없었던 때였으며 감귤농협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중형선과기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야 비로서 감귤농협을 표본상자 중형선과기를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6) 현재의 선과장의 설치현황 등은 현공남·유영봉(2004)p163~ 참조.

기본으로 하여 소규모로 주로 작목반<sup>7)</sup> 및 개인 상인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현대적 선과장은 전문적 경영인에 의해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면서 공동선과, 공동판매, 공동계산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원지관리 및 수확관리, 마케팅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유형분류와 특징을 통해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실증적 사례인 감귤농협 APC는 전통적 선과장에서 현대적 선과장으로 전환해나가는 과도기적 선과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귤농협 APC가 전통적선과장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현대적 선과장들과 구별되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 감귤선과장의 유형분류와 그 특징

구 분	전통적 선과장	과도기적 선과장	현대적 선과장
설립주체	작목반·개인상인·농협	농협·영농조합법인	전문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법인체
자본규모	10억 미만	10억 이상~100억미만	100억 이상
시설면적	500평 미만	500~1,000평	2,000평 이상
관리체계	회원협동관리 또는 개인적 관리	전문성 도입, 비독립적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조직	회원간 상호협동운영이 일반적	기능분화에 따른 일용고용형태가 일반적	기능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형태
원지관리	소유자별 개별관리	지도역량 강화	전문지도사에 의한 필지별, 품종별, 농가별 전문적·통계적·과학적 관리
상품수집방법	작목반원간 협의출하 또는 매취	작목반원간 합의출하 또는 매취, 출하계약 등이 혼재	출하계약에 의한 농가전량수집
수확관리	개별농가 결정	개별농가결정과 농가별 협의결정이 혼재	수확시기, 방법, 수확량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상품화기능	크기 및 외관구분에 의한 상품화	맛, 크기, 외관에 의한 상품화	맛·신선도·안전성·크기·외관 등에 따른 다양한 브랜드화
정산방법	개별정산	부분적 공동계산	품목별 전기간 공동계산
마케팅 기능	없음	부분적	전면적이고 적극적

7) 농협중앙회 『농협30년사』 1991. p153에서 작목반의 효시와 주요기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작목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70년도에 397개 단위조합에서 1,484개의 작목반을 조직한 것이 효시인데 조직목적이 영세규모의 개별영농을 협동영농의 형태로 유도하여 기술협동, 공동작업, 공동판매를 통한 영농의 과학화와 영농절감 및 유통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고소득, 고품질영농의 개발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 2. 감귤농협APC의 시설 및 조직

### 1) 설립규모와 시설현황

감귤농협 APC 는 2002년 11월 23일에 서귀포시 토평동에 건립, 개장하였다. 설립 초기 규모는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 면적이 19,590㎡(5,925평)에 선별장 면적 1,984㎡(600평)과 부속시설면적 911㎡(185평), 총2,895㎡(875평)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전통적 선과장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전통적 선과장들의 시설면적은, 조합직영의 경우가 평균228평, 작목반 선과장의 경우가 112평에 불과하다.<sup>8)</sup>

<표Ⅱ-2> 감귤농협 APC 설립 고정투자 규모 (단위 : ㎡, 백만원)

구 분	업무용 토 지	업무용 건물			업무용 동 산	합 계
		시설물	기 타	소 계		
규 모	19,590	1,984	911	2,895		22,485
금 액 <sup>1)</sup>	952	1,614	57	1,671	1,261	3,885

주) 1. 취득가액 기준임.

설립근거는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자율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에 의거 지원을 받아, 사업이 시행되었다. 초기 설립자금은 부지매입자금을 포함하여 건물 및 선과시설을 포함 총 38억8천만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부지자금인 9억5천만 원을 제외하면, 29억 3천만 원의 시설자금이 소요된 것이다. 초기 설립 자금조달 재원별로는 <표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 6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7억 2천만 원, 융자금 5억 7천만 원, 부지 포함 자체자금 25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부지를 제외하면 자체자금조달이 15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투자대비 자기자본투자율이 41.5%

8) 고성보 외(2006) p2

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2006 주요농축산 현황』에 의거하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에 설치되어있는 APC는 총 16개소이다. 부지를 제외한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90억 8천만 원 중 국비지원이 52억 9천만 원, 지방비 42억 1천만 원, 용자 53억 7천만 원, 자담이 42억 1천만 원으로 자기부담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이다. 따라서 감귤농협APC의 자기자본투자율인 41.5%은 크게 높은 것이었다.

<표 II-3> 감귤농협 APC의 자금조달현황(단위 : 백만원)

보 조 금			국고용자	중앙회용자	자체자금	합 계
국고보조	중앙회보조	소 계				
671	50	721	577.8	-	2,550.2	3,849

자료 : 2003년도 제주감귤농협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이러한 자기자본 투자는 당시의 설립근거가 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이 그간 분산 지원되어오던 산지유통관련시설을 2001년도부터 농산물 APC설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저온 유통기반 확충사업, 간이 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을 흡수하였음에 불구하고, 시설규모를 시장, 군수가 시행할 경우는 15억 원, 기타가 시행할 경우는 8억 원을 표준모델로 하여 시행되었던 점에서 설립 당시의 정책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sup>9)</sup>

주요 시설로는 배출구 15개, 시간당 6톤 처리능력의 4조식 껍방식 전자 중량식 캐리어와 진공흡입식 집진기<sup>10)</sup>를 장착한 감귤선별기 1대를 주요장치로 하고

9) 농림부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3권 자율사업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에 의하면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건물(350평, 554백만원): 최소를 100평이상으로 규정
  - 기계류(선별기 등, 80백만원)
  - 장비류(냉장탑차 등, 120백만원)
  - 계: 800백만원
- 지원기준은 생산단체의 경우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이며, 용자조건은 연리 5.0%로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 사업규모(부지매입비 제외): 사업비의 한도제한은 없으며, 사업장 실적에 따라 시설 및 사업규모를 증감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지원조건에서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일 경우는 15억원, 기타는 8억원을 표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음.

보완적으로 드럼방식의 선별기 1대를 갖추었다. 그리고 반입물량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측정할 수 있는 차량 계근 장치와 파렛트로 적재한 물량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랩핑기 및 소포장 작업대 등을 갖추었다. 또한 반입되어지는 감귤의 샘플링 등급판정을 위한 당산도 동시측정기기를 포함한 운반용 차량, 운반용 컨테이너 등을 갖추었다. 이러한 초기시설 외에 버트백 소포장기계, 광센서를 장착한 한라봉선과기 1조 라인 등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전자식 선과기는 정밀성과 처리 능력면에서 드럼형 기계식 선과기를 주로 장착하고 있는 전통적 선과장들과 구별된다. 또한 전 라인에 걸쳐 온라인 비과피 광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일본의 현대적 선과장들과도 구별되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 2) 운영조직 및 상품화 정산체계

감귤농협 APC는 2006년도 10월 감귤농협 유통사업소로 분리되기 전에는 서귀포시지점 산하 조직으로서 편제되어 있었다. 즉 APC 자체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관리조직은 '03년도 말 기준, 팀장 1명과 정규직 직원 1명, 비정규직 직원 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작업인력은 일용직 18명으로 운영되었다.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 관리직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작업물량에 따라 시기별 증감이 있으나, 작업인력은 사업물량이 계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작업조의 편성방식은 매시기별 작업량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선과장 내부인력으로 주선별기와 보조선별기에 투입 및 선별, 포장 및 파렛타이징을 담당하는 인원과 소포장 작업 시 별도의 팀을 꾸려 운영하였다. 선과장 외부현장은 하역 및 예조실 입고업무, 선과장 입고업무 별로 인원이 배치되었으며, 산지 수송팀은 개별용달과 용역계약을 맺어 이루어졌다.<sup>11)</sup>

10) 진공흡입식 집진기는 물세척에 따른 감귤의 부패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감귤농협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한 기계장치로 기존의 과실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세척과 건조과정을 거치던 방식을 부드러운 솔의 고속회전을 통해 먼지와 오염물질을 털어내고, 진공흡입방식으로 빨아내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2006년 11월에 개장된 남원읍 신흥리 소재 '거점APC'에도 설치되었음.

11) 구체적 내용은 제주감귤농협b(2006) p36 참조

상품등급은 내부품질에 따라 불로초, 곶핍元, 황금알, 일반품 4개로 구분 운영되었으며, 규격은 10단계로 구분되었다.<sup>12)</sup> 외관과 규격만으로 품질을 구분하는 전통적 선과장과 뚜렷이 구분된다.

품질검사는 입고되는 농가별 물량에서 무작위적인 샘플링에 의한 파괴식 검사 방식으로 품질판정을 하였다. 정산체계는 불로초, 곶핍元의 경우는 15일 주기의 점수제 공동계산방식<sup>13)</sup>을 채택, 운영하였다. 하지만 황금알과 일반품은 농가별 개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역시 규격선과, 개별출하, 개별정산의 체계를 갖고 있는 전통적 선과장과 개별 품목의 출하전체기간 공동계산을 실행하는 현대적 선과장과의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 3. 감귤농협APC의 운영실태 분석

#### 1) 연도별 판매물량 및 판매금액

<표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3년도 판매물량은 2,539톤, '04년도 판매물량은 4,761톤, '05년도 판매물량은 5,262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판매금액은 '03년도 39억원, '04년도 82억원, '05년도 12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03년도 판매물량에 비해 '05년도 판매물량은 207%, 판매금액은 320%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수치는 '03년도 말 제주감귤농협 전체 판매사업 총금액이 1,327억원, '04년도 말 1,441억원, '05년도 말 1,660억원으로 '05년도/'03년도 대비 12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품목별 판매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노지감귤은 200%, 하우스감귤과 비

12) 구체적 품목별 품질기준은 제주감귤농협(2005), 제주감귤농협a(2006) 표지내용 참조

13) 유영봉(2000)p39에 따르면 “공동정산제(Pooling System)라 함은 개별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과 혼합하여 등급별로 선별한 후, 일정기간 동안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기간 중에 획득한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각자의 개별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또한 점수제 공동정산 방식은 일본의 선과장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공동정산방식으로 개별생산자의 출하품에 대하여 등급과 계급별로 점수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정산을 할때에는 점수당 금액을 환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영봉(2000)의 부록을 참고바람.

<표 II-4> 감귤농협 APC의 3개년 판매사업량(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중 량 <sup>1)</sup>	금 액 <sup>2)</sup>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노지감귤	1,933	2,050	3,636	3,808	3,880	6,819
하 우 스 감	533	1,396	735	2,862	889	3,542
비 가 립 하 우 스		88	112	146	215	702
한 라 봉	40	157	220	1,153	196	1,063
기 타	33	211	58	285	83	377
합 계	2,539	3,902	4,761	8,254 <sup>3)</sup>	5,262	12,503 <sup>4)</sup>

자료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감귤농협 APC 결산보고서

주) 1. 상품화되어 거래처에 출하한 량(비상품과는 제외)

2. 판매금액을 말하며, 판매수수료를 제하기 전 금액으로 경락금액과 같은 의미임.

3. 지소 이관분 384,466천원을 포함한 수치임.

- 지소 이관분은 제주감귤농협 산하 지점(소)와 APC의 사업연합 또는 역할분담형태로 출하는 APC로 하고, 실적은 각 해당지소로 기표하는 것을 말하며, 판매수수료 2% 중 지점(소)는 1.4%를 갖고 환원수수료에 해당하는 0.6%는 유통센터가 갖는 형태로 수수료를 배분하였으나, 농림부와 유통공사의 실적 평가시 APC 출하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2006년도부터 폐지함.

4. 지소 이관분 88,173천원을 포함한 수치임

가림 하우스감귤을 합친 물량은 206%, 한라봉은 490%, 기타는 250%로 각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매금액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노지감귤은 332%, 하우스감귤은 253%, 비가림하우스는 799%, 한라봉은 679%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물량과 판매금액의 증가율에서 보듯이 물량의 증가는 매년 전체 판매 물량의 73~76%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의 증가율과 비슷한 반면 판매금액은 kg당 단가가 비싼 하우스감귤 및 한라봉의 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 판매금액이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전통적 선과장들이 2004년산 기준 평균 처리물량이 566톤인 점과 비교하면 8~10배 정도의 물량을 출하한 것이다.

## 2) 출하물량의 수집방법

'03년도의 경우는 전체물량이 수탁판매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04년도와 '05년도는 매취방법이 추가되어 병행 실시되었다. <표 II-5>는 '04년도와 '05

년도의 물량수집방법에 따른 품목별 중량과 금액의 비교표이다. '04년도의 경우는 수탁과 매취물량비율이 70:30비율에서 '05년도에는 54:46 비율로 매취물량비율이 높아졌다. 금액면에서는 '04년도의 경우 수탁 대비 매취비율이 61:39이며, '05년도의 경우는 수탁 대비 매취비율이 55:45로 매취에 의한 출하 방식이 증가하였다.

『2004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분석집』(제주감귤농협, 2005)에 따르면 매취사업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산지수집상의 가격조작행위를 견제하여 생산농가피해를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고품질감귤 사전확보를 통한 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연계출하를 통해 공동브랜드의 인식을 제고하고, 셋째는 공격적인 판매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넷째, 판매사업 차별화를 통한 판매전문조합으로서의 위상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매취사업의 추진체계는 지사무소에서 관내 고품질감귤에 대한 사전 당산도검사 및 품질확인 후 유통센터에 매취사업을 추진의뢰토록 하였다.

구체적 사업물량을 살펴보면 '04년도에 비해 '05년도가 매취물량은 많아지고, 수탁물량은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량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노지감귤에서도 수탁물

<표 II-5> 감귤농협 APC의 판매사업량 중 수탁과 매취구분비교<sup>1)</sup> (단위:톤,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수 탁		매 취		수 탁		매 취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노지감귤	2,591	2,464	849	1,094	2,225	4,234	1,655	2,497
하우스감귤	190	820	526	1,968	272	946	617	2,596
비가림감귤	112	146	-	-	96	292	119	409
한라봉	214	1,091	-	-	171	966	16	97
기 타	58	285	-	-	83	377	0.06	0.9
합 계	3,166	4,805	1,375	3,062	2,855	6,815	2,407	5,600

자료 : 2004년도,2005년도 제주감귤농협 APC 결산보고서,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주) 각 년도 판매실적 중에서 지소 이관분을 제외한 수치임. 지소이관분의 설명은 <표 II-3>참조

량은 줄어들고, 매취물량은 늘어났다. 따라서 매취에 의한 물량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품목별로 단가(=금액/중량)를 계산하여 보면 <표II-6>과 같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05년도 매취물량 측면에서 68.7%, 금액 면에서 44.9%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의 매취단가가 수탁단가에 비해 21%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다른 품목은 매취단가가 높게 형성되었다.

<표II-6> 감귤농협 APC의 수탁과 매취단가 비교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수탁단가	매취단가	수탁단가	매취단가
노지감귤	950.8	1,288.6	1903.0	1,508.5
하우스감귤	4,305.5	3,740	3,481	4,205
비가림감귤	1,303.5	-	3,055	3,441.5
한라봉	5,086.3	-	5,651.3	6,085
기 타	4884	-	4558.3	13,571.4

진술한 바와 같이 감귤농협APC의 매취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업물량을 늘리는 데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통상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는 주기적인 대규모 세일 행사로 인해 안정된 물량 확보가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감귤농협APC의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는 의무출하물량이 존재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결합력으로 인해 안정된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sup>14)</sup> 따라서 매취사업은 물량수급의 원활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세일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계산을 통하여 판매가격의 등락에 따른 개인적 가격 등락폭을 조절한다. 하지만 감귤농협APC는 공동브랜드(불로초, 귤림元)에 한하여 점수제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황금알과 일반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품질의 혼재 등으로 인해 개별정산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매취를 통

14) 감귤농협APC의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제3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해 대형업체의 세일 등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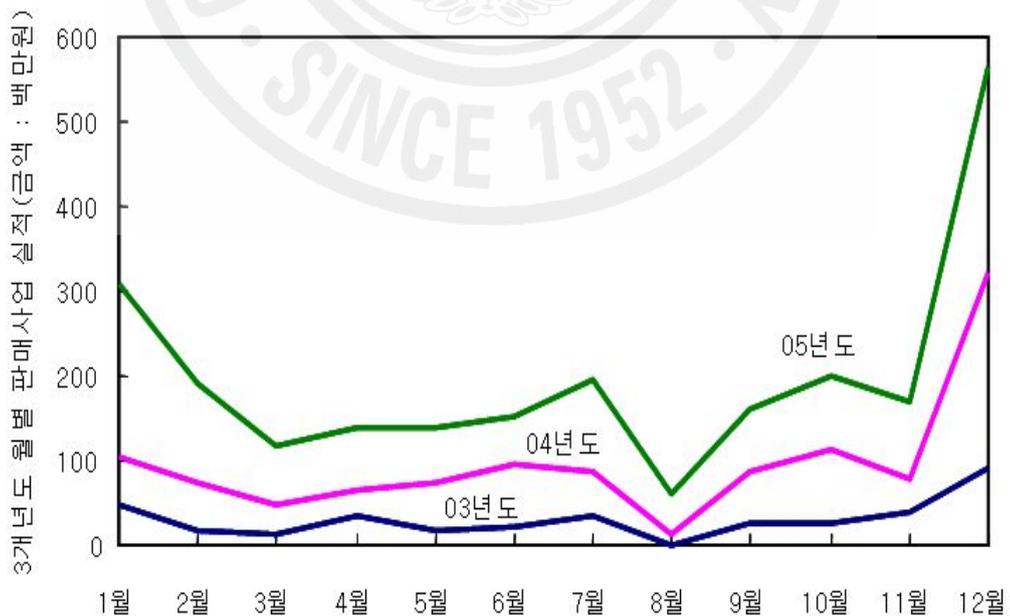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의 부재 등으로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는 원활한 물량수급을 위해 매취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용회원들과의 장기계약 등을 통한 공동계산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T업체의 부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 3) 월별 사업실적 비교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 시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중가동문제이다. 연중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미가동 시기에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계속 이루어지고, 고정비용은 계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II-1>에서 보듯이 3개년도 동일하게 노지감귤의 주출하시기인 12월이 가장 판매사업이 활발하고 하우스감귤이 가장 적게 출하되는 8월의 판매사업이 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1> 3개년도 월별 판매사업 실적 비교



자료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04년도 결산보고서에 '04년도 말 기준 1년간 선과장 가동일수가 361일과 야간 71일로 기록되어 있다.<sup>15)</sup> 추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각 품목별 판매 사업량의 증가 추세를 볼 때 매년 선과장 가동일수가 증가되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년도별 손익현황

<표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감귤농협 APC는 03년도 연도 말 기준 1억 1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04년도 말 기준 1천 1백만 원과 '05년도 말 기준 3백 6십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Ⅱ-7> 감귤농협 APC 3개년도 손익현황(단위: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손 익	△112.4	11.3	3.7

자료 : 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표Ⅱ-8>은 연도별 항목별 수익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선과수수료의 경우 '05년도 까지는 상품의 포장단위와는 상관없이 700원/상자를 부과하였다. 판매수수료의 경우는 등급에 관계없이 경락가격의 2%, 직판수수료는 7%를 부과하였다. '06년도 부터는 선과수수료의 경우 일반감귤 700원/상자, 꺾림원 800원/상자, 불로초 900원/상자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05년도 까지는 균등하게 적용되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불로초 등급은 3%, 꺾림원 등급은 2.5%, 일반등급은 1.8%로 등급별 차등화하고 있다. 하지만 '05년도 까지는 등급

15)전상호(2004)에 의하면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합동으로 200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모든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이집하장 3,530개소, 개량저장고 205개소, 경매식 집하장 63개소, APC 204개소, 선별장, 609개소, 예냉시설 469개소, 저온저장고 9,883개소 및 집하장 561개소가 설치되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시설규모는 APC가 1920㎡ 이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APC의 평균가동일수는 275일이며 선별기의 가동일수는 93.2일로 조사” 된 바 있음. 이와 비교할 때 감귤농협 APC의 가동일수는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표 II-8> 감귤농협 APC의 3개년 수익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선과수수료	305.6	529.1	645.9
판매수수료	85.2	138.4	164.0
운송수수료	5.0	16.9	13.1
기타수수료 <sup>1)</sup>	36.6	49.0	66.7
판매수익 <sup>2)</sup>	2.5	112.4	△36.8
영업외수익 <sup>3)</sup>	-	-	51.6
기타수익 <sup>4)</sup>	-	-	62.3
합 계	435.1	845.9	966.9

자료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주) 1. 기타수수료의 내용은 포장 상자류 관련임.

2. 판매수익의 내용은 매취사업관련이나, 03년도는 수출관련수익임.

3. 영업외수익의 내용은 조합손실보전자금관련임.

4. 기타수익의 내용은 보조금 수익임.

에 관계없이 2%로 균등하게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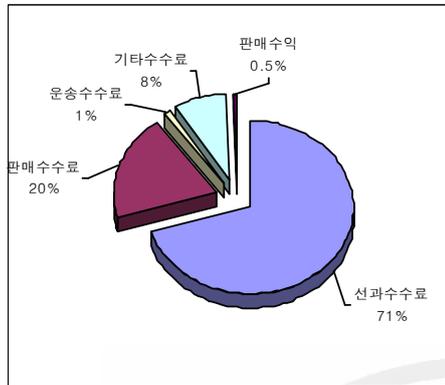
운송수수료는 APC에서 소비지까지 운송에 따른 운송대행 수수료와 과수원에  
서 APC로 직영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운송임으로 나누어진다. 산지 운송임인 경  
우 물론 자가수송일 경우는 운임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운송을 의뢰할 경  
우는 유통센터 직영차량을 이용하거나, 용달차량을 이용하거나 300원/20kg의 운  
송요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기준과 변화는 이용자들의 개인적 입장에 따라, 즉 수취가  
의 높낮이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에 대  
한 동태적 접근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협이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먼저 실시하되, 사업초기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규모의 경제성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그 만큼씩만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합원이나 농협  
에게 유리한 수수료 설정방식으로 판단된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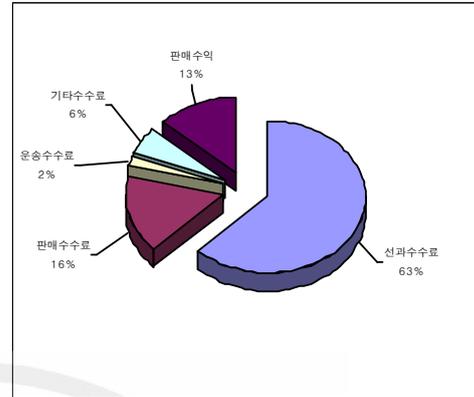
<그림 II-2>, <그림 II-3>은 '03년도와 '04년도 항목별 수익비율을 비교한 것  
이다.

16) 황수철, 황의식(2001), p251 인용

<그림 II-2> 감귤농협 APC의  
03년도 항목별 수익비율



<그림 II-3> 감귤농협 APC의  
04년도 항목별 수익비율



자료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년도별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03년도의 경우 전체수익의 71%를 선과수수료가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수수료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04년도의 경우도 선과수수료가 63%, 판매수수료 16%, 판매수익이 16%를 점하였으며, '05년도의 경우 또한 선과수수료가 66.8%, 판매수수료가 17%, 판매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의 80% 이상이 선과수수료와 판매수수료로 구성되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APC 수익구조는 판매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점과 확보되어진 물량의 판매단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품질이 좋은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따라 APC의 수익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표 II-9> '04년도와 '05년도 월별 매취사업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취 사업량과 금액에서 '04년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05년도에 수익구조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손익 면에서 매취사업의 적자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매취사업의 확대는 현재의 농협이라는 조직적 한계로 지적되는 리더쉽의 불안정, 순환보직체계 등으로 인한 전문성의 불연속성 등으로, 오히려 전체 수익을 악화시키는 구조로 진행될 우려 또한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9> 감귤농협 APC 매취사업 월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4년도	'05년도
1월	-	36.8
2월	-	3.0
3월	-	Δ45.6
4월	-	18.1
5월	-	Δ25.2
6월	-	37.6
7월	48.9	Δ26.7
8월	4.8	8.9
9월	25.6	Δ28.8
10월	Δ21.4	Δ1.6
11월	-	40.8
12월	54.5	Δ54.5
합계	112.4	Δ36.8

자료 : 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 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표 II-10> 감귤농협 APC의 3개년 비용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78.8	14.4	107.5	155.2	
	제세공과금	-	-	2.1	1.3	
	감가상각비	141.1	25.8	220.2	229.4	
	경비	43.9	8.02	63.6	33.4	
	소계	263.8	48.18	393.4	419.2	
이용비용	노임	181.2	33.1	254.5	249.6	
	제세공과금	14.1	2.6	12.8	16.3	
	자재사용	83.1	15.2	158.9	268.2	
	소계	278.5	50.9	426.3	534.2	
운송비용	제비	5.2	1.0	8.4	6.8	
판매비용	제비	-	-	6.5	3.0	
총계	547.5	100	834.6	963.2		

자료 : 03년도,04년도,05년도 감귤농협APC 결산보고서, 제주감귤농협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표 II-1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용 측면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작업인력비용을 나타내는 노임이었다.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도의 경우 33%, '04년도 31%, '05년도의 경우 26%로 분석되었다.

감가상각비용은 '03년도 26%, '04년도 26%, '05년도 24%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재비용의 경우는 '03년도 15%, '04년도 19%, '05년도 28%로 구분되어졌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노임, 자재비용을 포함한 3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03년도의 경우 74%, '04년도 76%, '05년도 78%에 이르렀다. 비용절감차원에서 분석한다면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기시설 투자분임으로 운영부분에서 절감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작업배치의 효율화, 인력운용의 적정화를 통한 작업인력의 합리화를 통한 노임의 절약과 15kg, 10kg, 7.5kg, 5kg, 3kg, 1kg, 망포장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박스를 포함한 자재의 수급 및 보관, 사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비용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 4.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

##### 1) 품질평가 및 브랜드 관리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 사업은 2001년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한 브랜드네이밍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하여 '블로초', '굴림元'이라는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굴돌이'라는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각종 식품전 출품과 공항, 천지연폭포, 소비지의 백화점 등지에서 판촉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는 2001년 노지감귤부터 출시되었다.<sup>17)</sup> 내부품질 기준으로는 노지감귤 블로초는 당도 11°Bx 이상과 산도 1%미만, 굴림元은 10°Bx 이상과 산도 1% 미만으로 정하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하우스감귤, 비가림감귤, 한라봉, 천혜향까지 품목별 품질기준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외관과 규격 중심의 기존 감귤상품시장에 객관적 수치로 표현 가능한 당도와 산도라는 내부품질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1박스 내에 담기는 상품의 균일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이러한 사항을 브랜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17) 제주감귤농협(2002) p6 참조

전달하려는 기존과는 질적으로 변화된 시도라 할 수 있다.<sup>18)</sup>

상품시장의 역선택 이론<sup>19)</sup>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보비대칭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며, 정보를 가진 측인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신호를 발송(Signaling)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품질관정 방식은 농가의 입고물량에서 무작위적으로 선과규격별 1개씩을 추출하여 당산도 동시측정기(NH-2000, 일본 호리바 제품)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크기는 2001년도의 경우는 드림식 선과기 구멍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2번과에서 7번과까지로 정하였다가 8번과 까지 확대·적용되었다.

2002년 8월에 ‘공동브랜드 출하방법 업무규정’을 만들어 내부의 업무방법 등을 공식화하고 절차화하였다. 이러한 업무방법은 2003년 9월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로초 출하창구는 유통센터로 일원화하고, 굴림元 출하창구는 유통센터와 해당 지사무소에서 관리하였다. 다만 유통센터를 통한 지사무소 공동브랜드는 사전선과, 출하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지사무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해당지사무소를 출하통지서에 기입, 병행 출하할 수 있었다. 출하수수료의 배분은 조합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도 정하였다.<sup>20)</sup> 둘째는 공동브랜드 출하지역은 서울지역의 경우 유통센터에 터에서 관리하며, 지사무소(직영 선과장, 작목반)공동브랜드 출하를 서울지역으로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유통센터와 협의토록 하였다. 셋째는 대형 직거래처 및 전자상거래 거래처에 대한 거래는 유통센터에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2006년 10월에 2차 개정 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18) 어떠한 감귤상품이 맛있고, 맛이 없는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소비자는 자기선택장치를 통한 선별과정(Screening)을 거치거나, 기존의 시장을 이탈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생산지에서도 내부품질이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경쟁적 시장구조에서 품질에 걸맞는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 그 시장을 벗어나, 본인이 생산한 물건을 구입해줄 구입처를 물색하는 또는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서 기존의 시장구조는 시장실패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 감귤농협 공동브랜드 사업은 질적으로 변화된 시도라고 평가될 만하다고 판단된다.

19) “역선택이론(The Market for Lemon)은 1970년 애컬로프의 레몬시장이론이란 논문에서 쓰인 용어로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조시 애컬로프는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 “레몬시장”에서 시장참가자간 비대칭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레몬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속은 형편없는 상품을 일컫는다.

20) 이 부분은 그 후 농림부 및 농산물유통공사에 실시하는 APC 실적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차 개정에서 삭제되어졌다.

<표 II-11> 감귤농협 APC의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연산별 출하현황 (단위:명, 톤, 원/kg)

구분	블로초			굴림원			비고
	농가수	출하물량	평균경락가격	농가수	출하물량	평균경락가격	
'03년산	36 (36)	268 (268)	2,112 (2,112)	102 (141)	600 (839)	- <sup>3)</sup> (1,312)	
'04년산	84 (84)	507 (507)	2,586 (2,586)	175 (282)	1,456 (2,198)	1,762 (1762)	
'05년산 <sup>2)</sup>	95 (95)	526 (526)	3,182 (3,182)	180 (333)	1,065 (2,041)	1,733 (1,726)	

자료 : 연산별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분석집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주) 1. ( )은 제주감귤농협 전체브랜드 농가수 및 출하물량, 평균경락가격임.

2. 2005년 12월에 폭설이 내리면서 완숙과 수확을 위해 수확을 늦췄던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서 브랜드 출하량이 줄어들었다.

3. '03년산 굴림원의 평균경락가격은 확인되지 않음.

<표 II-11>는 노지감귤 공동브랜드인 블로초, 굴림원의 연산별 농가수, 출하물량, 평균경락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매년 농가수, 출하물량, 경락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1인당 출하물량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기에 제주도 전체 노지감귤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블로초의 경우는 2.5~3배, 굴림원은 1.5~2배 정도의 높은 경락가격을 유지하였다.<sup>21)</sup>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공동브랜드의 수취가의 상승이 이용을 결정하거나 지속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I-12>는 노지감귤 블로초의 2개년산 출하처별 출하현황이며, <표 II-13>은 노지감귤 굴림원의 출하처별 출하현황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공판장은 가락공판장, 구리공판장으로, 회원농협으로는 충북 원예농협으로, 도매시장은 서울, 중앙, 한국청과와 구리, 인터넷, 대구중앙 등에 출하하였다. 또한 물류센터로는 고양, 성남, 청주물류 등에 판매가 이루어졌다.

출하처별 출하비율을 살펴보면 '04년도 75.9%, '05년도 83.1%가 도매시장으로

21) '03년산 제주감귤전체의 평균경락가는 13,581원/15kg으로, 905원/kg이다. 굴림원은 전체평균경락가의 1.5배, 블로초는 2.3배에 해당된다. '04년산의 경우 제주감귤전체의 평균가는 18,820원/15kg으로, 1,261원/kg이다. 따라서 굴림원은 전체평균경락가의 1.4배, 블로초는 2.1배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졌다. '05년산의 경우 제주감귤전체의 평균경락가는 12,133원/15kg, 809원/kg이다. 따라서 굴림원은 전체평균경락가의 2.1배, 블로초는 3.9배에 해당되는 가격형성이 이루어졌다.

- 제주감귤전체의 평균경락가격은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가 발행하는 「각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자료참조

<표 II-12> 감귤농협 APC의 불로초(노지감귤)의 출하처별 출하현황(단위 : kg, %)

구 분	'04		'05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공 판 장	19,840	3.9	5,105	1.0
회원농협	600	0.1	150	-
도매시장	384,609	75.9	437,012	83.1
물류센타	27,425	5.5	37,510	7.1
직판,수출,기타	74,181	14.6	45,973	8.7
계	<b>506,655</b>	100	<b>525,750</b>	100

자료 : '04,'05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분석집, 제주감귤농협

출하가 이루어졌는데, H백화점, S백화점의 벤더(Vender)역할을 수행하는 중매인들을 통한 판매형태로 이루어졌다.<sup>22)</sup>

불로초의 경우 전체출하물량 중 도매시장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처와의 가격협상에서 산지가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경쟁적 가격형성기구인 경매시장에서 형성하려는 의도가 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운영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파악되어졌다. 1개 품목으로 대형 백화점 등에 납품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다.

귤림元은 도매시장 출하비율이 '04년산에 비해 '05년산의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는 출하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며, '04년산 직판비율이 높은 것은 대형할인점과의 거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05년산의 경우는 대형할인점의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직판비율이 낮아졌다.<표II-13>

<표 II-13> 감귤농협 APC의 귤림元(노지감귤)의 출하처별 출하현황(단위: kg, %)

구 분	'04		'05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공 판 장	142,780	9.8	141,570	13.3
회원농협	-	-	-	-
도매시장	469,976	32.3	733,519	68.9
물류센타	29,734	2.0	12,000	1.1
직판,수출,기타	814,013 <sup>1)</sup>	55.9	177,965	16.7
계	1,456,503	100	1,065,054	100

자료 : '04,'05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분석집, 제주감귤농협

주) 1. 삼성데스코(661,852kg, 45.4%), 공향직판장(81,411kg, 5.6%), 택배(70,750kg, 4.9%)

22) 분석시기에 감귤농협APC를 운영했던 운영자들과의 면담과정에 확인함.

<표 II-14> 감귤농협APC의 '04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포장단위별 출하물량(단위 : kg, %)

구분	블로초		굴림元		총계	
	중량	비율	중량	비율	중량	비율
10kg포장	328,555	64.8	857,920	58.9	1,186,475	60.4
5kg포장	126,775	25.0	340,195	23.4	466,970	23.8
3kg포장	47,907	9.5	39,505	2.7	87,412	4.5
2kg포장	-	-	161,025	11.1	161,025	8.2
1kg포장	1,418	0.3	57,858	4.0	59,276	3.0
계	506,655	100.0	1,456,503	100.0	1,963,158	100.0

자료 : '04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분석집, 제주감귤농협

<표 II-14>는 2004년산 노지감귤 블로초와 굴림元의 포장 단위별로 출하물량을 구분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kg 포장단위가 전체의 60.5%, 5kg 포장 단위가 23.8%, 3kg 포장 단위가 4.5%, 2kg 포장 단위가 8.2%, 1kg 포장 단위가 3.0%를 차지하였다.

유통센터 설립 당시에는 제주감귤의 상품 포장 중량이 15kg포장이 중심이던 상황에서 주력 포장 중량을 10kg으로 변경 시행하였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아울러 포장 단위가 다양한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의 소비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소포장 판매를 강화함으로써 경락단가 또는 농가수취가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인 블로초, 굴림元은 단기 간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인식되었으며,<sup>23)</sup> 공동브랜드를 생산 출하한 농가들 중 노지감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얻은 사례<sup>24)</sup>들도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에 합격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동브랜드로 출하했느냐에 따라, 감귤농협 APC를 이용을 자극하는 동기 또는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강력히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 사업은 고품질감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객관화시켰다는 점과 이러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 및 거래시장에

23) 현공남·유영봉(2004) p229 “농가, 농감협직원, 관련공무원들에게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감귤 브랜드를 물었을 때 농가, 농감협직원, 공무원 공통으로 제1순위를 블로초, 제2순위를 굴림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24) 제주감협b(2006) p69 “영농사례” 참조

그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시킨 점과 아울러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 체계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 생산농가들의 고품질 생산의욕을 자극시킨 점, 타 농협들의 판매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촉진한 점<sup>25)</sup> 등은 기존의 전통적 선과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품질관정과 공동계산제도

감귤농협APC의 품질관정제도는 입고되는 감귤에 대하여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파괴식 당산도 측정기로 공동브랜드인 불로초, 굴림元和 유통센터 자체브랜드인 황금알과 일반품 등 4개의 상품과 등외품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7개의 샘플링 감귤 중 1개라도 기준당도와 산도에 미달되면 브랜드감귤로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다. 즉 전부가 브랜드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전부가 브랜드에 해당되지 않거나 하는(All or Nothing)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산은 불로초와 굴림元의 경우는 각각 15일 단위의 점수제 공동계산을 실시하고, 황금알과 일반품의 경우는 개별정산을 실시하였다.

유영봉(2000)에 따르면 공동정산제(Pooling System)라 함은 개별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과 혼합하여 등급별로 선별한 후, 일정기간 동안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기간 중에 획득한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각자의 개별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점수제 공동계산 방식은 일본의 선과장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공동계산방식으로 개별생산자의 출하품에 대하여 등급과 계급별로 점수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동계산을 할 때에는 점수당 금액을 환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II-15> 규격에 따른 기준점수

구 분	2번과	3번과	4번과	5번과	6번과	7번과	8번과
점 수	75	85	100	100	85	80	65

25) 다른 농협들의 내부품질에 따른 브랜드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음. 중문농협의 “황제”브랜드가 대표적임.

<표 II-16> 당도 및 산도 점수표

당 도		점 수	산 도	
굴림元	블로초		블로초	굴림元
12.0	13.0	+10		
11.8	12.8	+9		
11.6	12.6	+8		
11.4	12.4	+7		
11.2	12.2	+6		
11.0	12.0	+5		
10.8	11.8	+4		
10.6	11.6	+3	0.7	0.7
10.4	11.4	+2	0.8	0.8
10.2	11.2	+1	0.9	0.9
10.0	11.0	0	1.0	1.0

<표 II-15>와 <표 II-16>는 감귤농협APC에서 적용하는 규격에 따른 기준 점수와 당도 및 산도에 따른 가산점수 기준표이다. 일본의 공동계산 방식과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나, 운용방법은 상이한 점이 있다.<sup>26)</sup>

당도와 산도에 따른 가산점수는 샘플링감귤의 평균당도와 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수를 부가하였다. 즉 1차적으로 샘플링감귤의 파괴식 검사를 통하여 브랜드급 해당 여부와 어느 브랜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2차적으로는 평균당도와 산도가 각급 브랜드기준보다 높을 경우 <표 II-16>과 같이 가산점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가가 출하한 감귤이 굴림원으로 판정받고, 평균당도가 11.4° Bx이고, 평균산도가 1%일 경우, 당도에 대한 가산점은 2점, 산도에 대한 가산점은 0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은 '05년산 노지감귤부터 품질별 가격차를 확대하여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유도할 목적으로 기본가산점수에 규격수(2번과~8번과=7)를 곱한 값을 가산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점이 높은 규격품의 비율이 높으며,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을 경우 유리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점수제 공동계산방식은 전통적인 제주감귤 선과장의 개별정산체제와 비교할 때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26) 일본의 점수제 공동계산방식은 유영봉(2000) 부록과 유영봉(2005) p239 참조.

27) 황수철·황의식(2001) p228 “..한편, 엄격한 선별은 농가별 품질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공동계산제의

[표 II-17] 감귤농협APC 공동계산제 예시

구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소계	당도	산도	
A 농 가	중량	5	10	25	20	30	15	5	110	11.5	1.0
	비율	4.55	9.09	22.73	18.18	27.27	13.64	4.55	100	가산점	가산점
	점수	3.41	7.73	22.73	18.18	23.18	10.91	2.96	89.1	14	0
B 농 가	중량	5	15	30	25	20	10	5	110	12.0	1.0
	비율	4.55	13.64	27.27	22.73	18.18	9.09	4.55	100	가산점	가산점
	점수	3.41	11.59	27.27	22.73	15.45	7.27	2.96	90.68	35	0

구체적으로 출하농가의 출하규격과 당도, 산도에 따라 어떻게 수취가격이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sup>28)</sup> <표 II-17>는 예시를 위한 도표이다. A,B농가는 1차적으로 샘플링 측정을 통하여 불로초로 판정을 받았다.

① A농가 총가산점 = 2점(당, 산도 가산점수)×7 = 14점

B농가 총가산점 = 5점(당, 산도 가산점수)×7 = 35점

② A농가 총점수 = [규격별 점수(89.1점)+가산점(14점)]×총중량(110kg)=11,341점

B농가 총점수 = [규격별 점수(90.68점)+가산점(35점)]×총중량(110kg)=13,825점

총점수 = A농가 총점수 + B농가 총점수 = 25,166점

③ 시기별 총판매금액=7,000천원, 제비용 677천원, 유통센터 수취가격 6,322천원

일 때 점수당 금액 =  $\frac{\text{유통센터 수취가격} (= \text{총판매금액} - \text{제비용})}{\text{총 점 수}} = 251.21\text{원}$

④ A농가수취가(2,848,972원) = A농가 점수(11,341점) × 점수당 금액(251.21원)

B농가수취가(3,472,978원) = B농가 점수(13,825점) × 점수당 금액(251.21원)

④번에서 알 수 있듯이 A,B농가가 출하중량도 110kg으로 같고, 불로초로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규격점수가 높고, 가산점수가 높은 B

정립을 가능케 하며, 고품질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외서농협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농가간의 품질차이를 반영한 공동계산을 통해 농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가들이 어떤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높은 수취가격을 얻을 수 있는 지 인식하게 되면서 재배기술의 전반적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의 출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함

28) 농협중앙회(2004) p125 참조

농가의 수취가격이 높아지는 계산방식이다.

### 3) 이용률 제고와 조직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 이전에 277명의 회원으로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시설 이용을 비조합원에게도 같은 조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또한 각 지점(소)별로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생산에 따른 기술협력 및 교육, 견학 등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초생재배의 적극적 확대, 유기질 비료의 시용 확대 등의 지도사업 등을 통하여 고품질 생산을 적극적 유도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유통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원지를 방문하여 상담 및 품질검사, 출하상담 등을 병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지도사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필지별, 원지별, 품종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과 비교하면 한계를 갖고 있다.

### 4) 운영상의 문제점

1절에서 감귤농협APC는 전통적 선과장에서 현대적 선과장으로 전환해나가는 시점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중형급 APC이며, 품질등급 판정방식은 무작위 샘플링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통시설임을 우선 밝혔다.

위에서 분석한 대로 전통적 선과장들과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품질판정제도는 비용적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당·산도 검사 수치의 변동가능성의 문제, 입하물량에 따른 샘플링 개수 또는 비율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의 확보 문제<sup>29)</sup>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APC를 이용하

29) 강동일 외 (2006)p14에서 원저자인 미야모토 쿠미는 일본의 경우는 원지별 품질판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 해왔던 2~3개의 샘플링 검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입하로트의 샘플검사에 의한 품질 판정을 인간의 혀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도판정에는 약 10~20개, 산의 판정에는 약 10~30개의 검사용 과일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샘플링 방식은 원지별 품질판정이며, 감귤농협

는 사람들이 신뢰와 불신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다만 완숙과 구분수확기술<sup>30)</sup>의 미정착과 더불어 노동력의 문제<sup>31)</sup>, 품종별 선과체계의 미정착 등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들과 비교할 때 필지별 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관정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나가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성의 미비는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도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감귤농협APC의 점수제 공동계산제는 개별정산체제의 전통적 선과장에 머물러 있는 제주감귤 유통방식과 비교하면 시장교섭력 확대, 내부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등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브랜드 공동계산의 경우 불로초와 굴림元을 통합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각 실시한 점과 유통센터 브랜드인 황금알과 일반품에 대하여는 공동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생산농가들의 완숙과 구분수확이라는 생산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들이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세워,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연결되는 수직적 계열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처를 옮겨 다니는 유목출하<sup>32)</sup>형태를 고착시킬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APC는 입고물량별 품질판정방식으로 상이하다. 다만 감귤농협APC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샘플링 개수에 대한 통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할 것이다.

30) 감귤은 보통 2~3회, 많으면 5회까지 나누어서 수확된다. 감귤나무의 특성상 1개의 나무에서도 열매가 달린 위치에 따라 내부품질(당도와 산도)이 다르기 때문에, 수확할 때 가장 잘 익은 열매만을 수확하는 방식을 완숙과 구분수확이라 한다.

31) 현공남·유영봉(2004), p198, “생산농가들이 농작업 중 가장 힘든 작업이 수확 및 운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 로 조사된 바 있음.

32) 유목출하란 출하자들이 어느 집단 또는 조직에 묶이지 않고, 그 해의 작황, 품질,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출하처를 옮겨다니며 출하하는 형태를 지칭한 표현임.

## 5. 요약

2장에서는 먼저 감귤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기능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선과장을 전통적 선과장, 현대적 선과장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감귤농협APC의 규모, 시설, 정산제도, 운영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 감귤농협APC는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선과장에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적 선과장으로 진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선과장으로서의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음미하였다.

그리고 운영실태 분석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운영과 제도 등이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 미칠만한 요인에 대한 탐색과 추론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감귤농협 APC 설립과정과 자기자본 투자율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농협의 전략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호응정도가 감귤재배 농가들의 APC 이용율에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로, 매년 농가수, 출하물량, 경락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거나, 1인당 출하물량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기에 제주도 전체 노지감귤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불로초의 경우는 2.5~3배, 굴림원은 1.5~2배 정도의 높은 경락가격을 유지하였다.<sup>33)</sup>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공동브랜드의 수취가의 상승이 이용을 결정하거나 지속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셋째로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판매물량과 판매금액, 수익구조 예전의 농협들의 판매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매취사업의 확대 등으로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또한 주목되어졌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APC물량 수급을 담당할 이용조직이 의무출하 등의 강제력 또는 결속력이 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넷째로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품질관정제도는 비용적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33) 각주21)참조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하는 사람에 따라 측정치의 변동가능성 문제, 입하물량에 따른 샘플링 개수 또는 비율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의 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A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와 불신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다만 완속과 구분수확기술의 미정착과 더불어 노동력의 문제, 품종별 선과체계의 미정착 등의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적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들과 비교할 때 필지별 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관정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나가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성의 미비는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도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다섯째로는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인 불로초, 굴림元은 단기간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인식되었으며, 공동브랜드를 생산 출하한 농가들 중 노지감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얻은 사례들도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에 합격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동브랜드로 출하했느냐에 따라, 감귤농협 APC를 이용을 자극하는 동기 또는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강력히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 사업은 고품질감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객관화시켰다는 점,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 및 거래시장에 그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시킨 점,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 체계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 생산농가들의 고품질 생산의욕을 자극시킨 점, 타 농협들의 판매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촉진한 점 등은 기존의 전통적 선과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여섯째로는 감귤농협APC의 점수제 공동계산제는 개별정산체제의 전통적 선과장에 머물러 있던 제주감귤 유통방식과 비교하면 시장교섭력 확대, 내부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등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동브랜드 공동계산의 경우 불로초와 굴림元을 통합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각 실시한 점과 유통센터 브랜드인 황금알과 일반품에 대하여는 공동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생산농가들의 완속과 구분수확이라는 생산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없는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계들이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 세워,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까지 연결되는 수평적 조직화, 수직적 조직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하였다.



### Ⅲ. 농가의 감귤농협 APC 이용실태 분석

#### 1. 농가의 APC 이용실태 분석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품목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Ⅲ-1>과 같다. '03년도 이용자는 노지감귤 297명, 비가림감귤 13명, 하우스감귤 59명, 한라봉 28명, 기타 24명으로 총 421명이 이용하였다. 이 중에 품목별 중복 이용자 42명을 제외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회 이상 출하실적을 있는 이용자는 379명이다. '04년도의 경우는 노지감귤 561명, 비가림감귤 23명, 하우스감귤 85명, 한라봉 75명, 기타 25명으로 총이용자는 769명이었다. 이중에 중복 출하자를 제외하면 1회 이상 출하실적이 있는 이용자는 497명이다. '05년도의 경우는 1회이상 출하실적이 있는 이용자는 540명이었고, 노지감귤은 549명, 비가림감귤은 40명, 하우스감귤은 75명, 한라봉 54명, 기타 32명이다. 총 이용자는 750명으로 이중에 중복이용자는 210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 감귤농협APC 연도별·품목별 이용자 현황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수탁	소계	수탁	매취	소계	수탁	매취	소계
노지감귤	297	297	327	234	561	353	196	549
비가림감귤	13	13	23	-	23	21	19	40
하우스감귤	59	59	45	40	85	40	35	75
한라봉	28	28	75	-	75	49	5	54
기타	24	24	25	-	25	31	1	32
합계	421	421	495	274	769	494	256	750
중복이용자 <sup>1)</sup>	-	42	-	-	272	-	-	210
이용실적자 <sup>2)</sup>	-	379	-	-	497	-	-	54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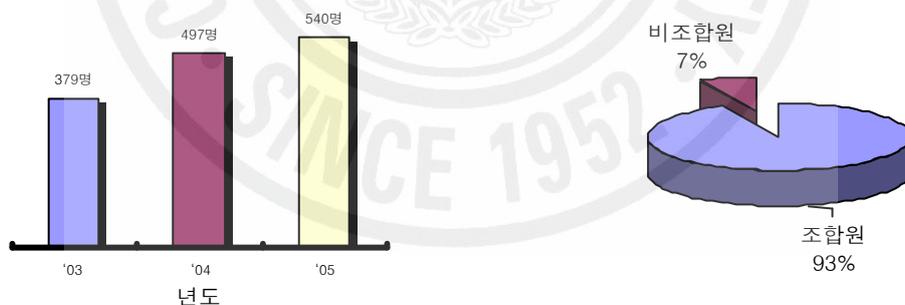
주) 1. 중복이용자 : 출하자 1인이 품목 또는 수탁 및 매취를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

2. 이용실적자 : 품목과 출하방법에 관계없이 1년동안 출하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자.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제주감귤농협 토핑 APC를 통하여 물량과 금액, 품목,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관계없이 1회 이상 출하한 이용자는 총 94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별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03년도의 경우 379명, '04년도 497명, '05년도 540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개년도를 합치면 1,416명이나, 연속 이용자를 빼면 946명으로 집계되었다.

3개년도 이용자 946명에 대한 조합원 여부를 2007년도 5월말일 자로 조사한 결과, <그림Ⅲ-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합원 이용자는 877명으로 점유율이 92.7%, 비조합원 이용자는 69명으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차 운영실태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APC 이용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을 개방한 점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Ⅲ-1> 감귤농협 APC의 3개년도 이용자 현황<sup>34)</sup>      <그림Ⅲ-2> 감귤농협 APC의 조합원 이용자 현황<sup>35)</sup>



34) [표] 감귤농협 APC의 3개년도 이용자 현황

'03년도 이용자수	'04년도 이용자수	'05년도 이용자수	03~05년도 이용자 합계
379명	497명	540명	946명

35) [표] 감귤농협 APC의 조합원 이용자 현황

전체		조합원		비조합원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946	100	877	92.7	69	7.3

<표Ⅲ-2> 감귤농협 APC 이용자의 평균출하중량 및 출하금액(단위:톤,백만원)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출하중량 <sup>1)</sup>	출하금액 <sup>2)</sup>	출하중량	출하금액	출하중량	출하금액
노지감귤	6.51	6.90	6.48	6.79	7.07	12.42
비가림감귤	7.40	6.78	4.87	6.35	5.38	17.55
하우스감귤		23.66	8.65	33.67	11.85	47.23
한 라 봉	1.43	5.61	2.93	15.37	3.63	19.69
기 타	1.38	8.79	2.32	11.40	2.59	11.78
전 체	6.03	9.29	6.19	10.73	7.02	16.67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주) 1. 1인당 연간 품목별 평균출하중량 = 품목별 총출하물량/총출하자  
- 총출하자는 당해연도 품목별 출하자의 합계를 말함.

2. 1인당 연간 품목별 평균출하금액 = 품목별 총출하금액/총출하자

<표Ⅲ-2>는 <표Ⅱ-3>의 APC의 판매현황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 품목별 평균출하물량을 산출한 것이다. '04년도 노지감귤 출하중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금액에서도 04년도 노지감귤과 비가림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각 년도별 품목 및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따른 중복출하자를 제외한 1인당 평균출하물량<sup>36)</sup>을 산출하여 보면, '03년도의 경우 6,700kg, '04년도 9,580kg, '05년도 9,744kg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금액 면에서도 1인당 평균 출하금액이 '03년도 10,295천원, '04년도 12,582천원, '05년도 23,153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매해 꾸준히 APC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출하물량이 매해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유통시설과 유통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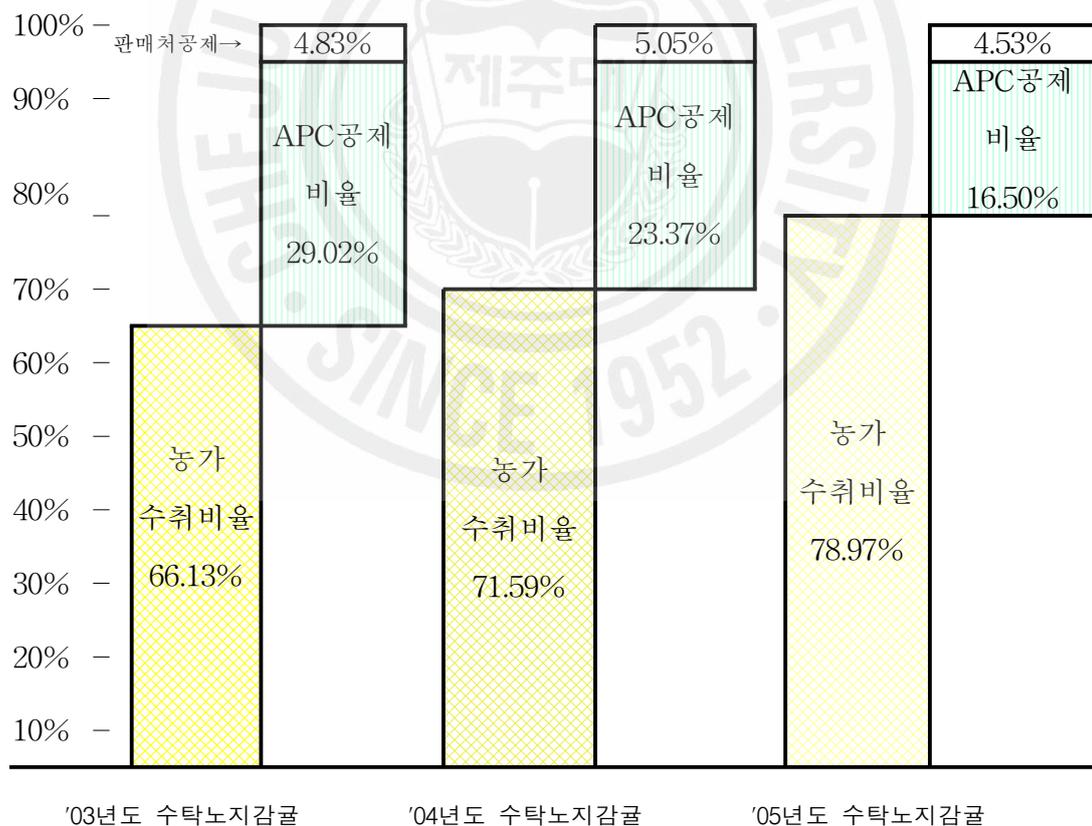
<그림Ⅲ-3>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

36) 1인당 평균출하물량(금액)=총출하물량(금액) / 연도별 이용실적자

- 연도별 이용실적자는 당해연도 품목별, 출하방법에 따른 중복출하자를 제외하여 당해연도에 1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자를 말함.

하기 위하여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수탁노지감귤의 농가수취비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년도 수취비율은 총경락가에서 공판장 수수료 등의 판매처공제분과 선과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APC공제분을 제외한 농가가 수취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경락가에서 차지하는 판매처 공제분은 '03년도 4.83%, '04년도 5.05%, '05년도 4.53%로 변동이 거의 없다. 반면에 APC공제 비율은 '03년도 29.02%에서, '04년도 23.37%로, '05년도 16.50%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농가수취비율은 '03년도 66.13%에서 시작하여 '04년도 71.59%, '05년도 78.9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비용은 하락하고, 농가수취가는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3> 감귤농협 APC 연도별 수탁노지감귤 농가수취비율의 변화



<표Ⅲ-3>은 1개 년도에 품목과 물량, 출하횟수에 관계없이 출하를 하였으면 1개년도 이용자로 보고, 2개년도 출하실적이 있으면 2개년도 이용자로 분류하고 3개년도 연속 출하실적이 있으면 3개년도 이용자로 분류하여 본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용자들의 년도별 출하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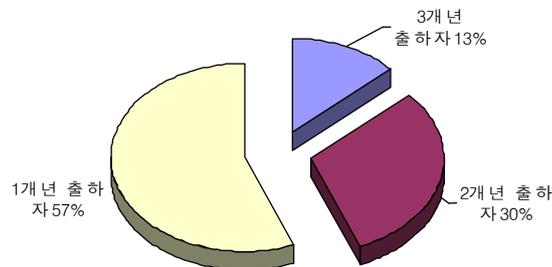
<표Ⅲ-3>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 분석

구분	전체	3개년도 이용자	2개년 이용자				1개년 이용자			
			'03, '04 년도	'03, '05 년도	'04, '05 년도	소계	'03 년도	'04 년도	'05 년도	소계
이용 자수	946	126	82	21	185	288	156	131	245	532
비율	100	13.3	8.7	2.2	19.6	30.5	16.5	13.8	25.9	56.2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그 결과, 3개년도 연속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13.3%의 126명이었고, 2개년도 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30.5%의 288명이었다. 조사 년도 중 1개년도만 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56.2%의 53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Ⅲ-4>와 같다.

<그림Ⅲ-4>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 분석



전체 이용자 중에서 어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이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용자는 이용을 했다가, 중단하거나, 또는 중단했다가 다시 이용을 재개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에게 이용 지속, 이용중단이라는 이용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개년도 이용자들을 이용형태별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표Ⅲ-4>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 전체의 연령대의 경우는 40대가 18.6%, 전체조합원 40대 연령비율이 15.7%인 점과 비교하면 3% 정도 높고, 70대의 경우는 전체 조합원 비중이 20.47%, 이용자의 70대 비중은 16.2%로 4% 정도 적게 조사되었다.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 60대가 전체의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4.4%, 70대가 21.8%로 조사되었다. 제주감귤농협 전체 조합원의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60대가 35.31%, 50대가 24.87%, 70

<표Ⅲ-4> 감귤농협 APC 이용자의 연령분포현황 (단위 : 세, 명, %)

구 분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전체	평균 연령
3개년도 이용자	인원	-	4	20	29	40	26	119	59.94
	%	-	3.7	16.8	24.4	33.6	21.8	100	
2개년 이용자	'03'04 인원	-	7	11	23	22	11	74	57.05
	%	-	9.5	14.9	31.1	29.7	14.9	100	
'03'05 이용자	'03'05 인원	-	-	3	6	8	3	20	61.4
	%	-	-	15	30	40	15	100	
'04'05 이용자	'04'05 인원	1	8	37	36	65	23	170	57.9
	%	0.6	4.7	21.8	21.2	38.2	13.5	100	
1개년 이용자	'03 인원	3	6	18	42	48	24	141	58.65
	%	2.1	4.3	12.8	29.8	34	17	100	
'04 이용자	'04 인원	1	4	33	31	39	20	128	57.81
	%	0.8	3.1	25.8	24.2	30.5	15.6	100	
'05 이용자	'05 인원	-	9	41	60	80	35	225	58.44
	%	-	4	18.2	26.7	35.6	15.6	100	
전 체	인원	5	38	163	227	302	142	877	
	%	0.6	4.3	18.6	25.9	34.4	16.2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대가 20.47%인 점과 비교하여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개년 이용자 집단과 1개년 이용자 집단의 경우도 약간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5>는 APC이용자들 중 노지감귤 공동브랜드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이용자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개년 이용자 집단이 공동브랜드 출하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역으로 비브랜드(황금알, 일반품) 출하비율의 경우는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는 25.4%, 2개년 이용자 집단은 45.5%, 1개년 이용자 집단은 79.3%로, 1개년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3개년 이용자 집단 비율이 가장 낮다. 즉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가 공동브랜드에 합격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역으로 2개년이용자 집단, 1개년 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브랜드 합격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 합격률과 이용형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Ⅲ-5> 감귤농협 APC 이용자와 노지감귤 공동브랜드출하자<sup>1)</sup> (단위 : 명, %)

구 분		3개년	2개년	1개년	비브랜드 출하자	전 체
		공동브랜드 출하자	공동브랜드 출하자	공동브랜드 출하자		
3개년이용자	인원	37	32	25	32	126
	%	29.4	25.4	19.8	25.4	100
2개년이용자	인원	2	59	96	131	288
	%	0.7	20.5	33.3	45.5	100
1개년이용자	인원	-	7	103	422	532
	%	-	13.2	19.4	79.3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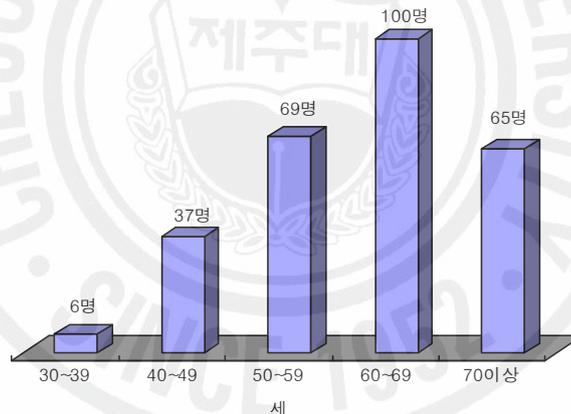
주) 1. 공동브랜드 출하자는 노지감귤에 한하여 출하기간 동안 1회 이상 공동브랜드인 불로초, 굴림원 출하실적이 있는 이용자를 말함.

## 2. 이용조직의 이용실태분석

### 1) 이용조직 구성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으로는 개장 이전에 27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불로초협의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구성원 대부분의 거주지는 APC가 위치해있는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가입 회원별 연령별 분포현황을 <그림Ⅲ-5>에서 살펴보면 60대가 100명으로 36.1%, 50대가 69명으로 24.9%, 70대가 65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61.36세로 조사되었다.

<그림Ⅲ-5> 감귤농협 APC ‘불로초협의회’회원 연령별 분포



이러한 연령분포를 <표Ⅲ-6>의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연령별 분포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70대가 비율상 3%p 높고, 30대와 40대가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합원 평균 연령대와 비슷한 분포대를 갖고 있었다.

다만, <표Ⅲ-6>의 2006년 말 기준 제주지역 감귤생산농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9.9%, 70대 이상이 21.6%, 50대가 21.5%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이 2%p 정도 높고, 60대가 6%p 정도 높으며, 50대가 3.4%p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주감귤농협의 조합원 연령이 제주지역 전체 감귤생산자 연령보다는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는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연령대와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C 3개년 이용자들과도 비슷한 연령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Ⅲ-6> '불로초협의회', 감귤농협 조합원 및 감귤농가 연령별<sup>1)</sup> 분포 (단위 : 세, 명, %)

구 분	전체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기타	
불로초 협 회 원	인원수	277	-	6	37	69	100	65	
	비 율	100	-	2.2	13.4	24.9	36.1	23.5	
제 주 감 협 조 합 원	인원수	11,082	14	453	1,678	2,756	3,913	2,268	
	비 율	100	0.13	4.08	15.1	24.8	35.3	20.4	
제 주 감 귤 농 가 <sup>2)</sup>	인원수	30,747	106	1,436	4,820	6,622	9,203	6,630	1,930
	비 율	100	0.3	4.7	15.7	21.5	29.9	21.6	6.3

자료 : 제주도청 감귤정책과(2006년 말 현재기준)

주) 1. 회원의 연령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며, 연령계산방식은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임.

2. 제주감귤농가의 연령별자료 : 제주도청 감귤정책과(2006년 말 현재기준)

최초가입회원의 재배규모별 현황을 <표Ⅲ-7>에서 살펴보면, 1.0~1.5ha가 80명으로 28.9%, 0.5~1.0ha가 57명으로 20.6%, 1.5~2.0ha가 48명으로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ha이상의 대농가도 30명으로 10.8%로 분석되었다.

제주지역 감귤재배농가의 규모를 살펴보면 0.1~0.5ha 구간이 서귀포지역 45.7%, 제주시 지역 45.6%를 차지하며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4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로초협의회 초기 가입회원들의 영농규모를 제주도 호당 재배면적 비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재배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가입자격 기준이 자기 소유 또는 임대이든 간에 관계없이 감귤경작면적이 1,5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규모가 일반감귤재배 농가들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Ⅲ-7> ‘불로초협의회’ 회원과 서귀포시 감귤재배농가 재배규모별<sup>1)</sup> 분포비교

(단위 : ha, 호, %)

구 분	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ha 이상	
불로초협 의회	농가수	277	-	12	57	80	48	38	12	30
	비 율	100	-	4.3	20.6	28.9	17.3	13.7	4.3	10.8
서귀 포시	농가수	20,281	1,541	9,275	5,439	2,294	969	389	175	199
	비 율	100	7.6	45.7	26.8	11.3	4.8	1.9	0.9	1.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제주도청 감귤정책과(2006.12월 현재)

주) 1. 재배규모는 감귤류 전체를 포함한 것이며,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를 모두 포함한 것임.

불로초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APC이용조직의 규모는 기존의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이 2004년 5월말 현재 기준<sup>37)</sup>으로 252개, 반원수는 4,915명으로, 평균 반원수가 19.4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인원을 갖고 출발이 되어졌다. 또한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지점이 32개 작목반에 514명의 반원을 갖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277명의 조직원 수는 상당히 높은 조직화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3장 22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있는 초기 조직정관을 살펴보면 고품질 감귤생산에 대한 의욕이 있으면 가입이 자유로운 체계를 갖고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의무출하물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산지유통센터(APC)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회원으로서의 별도의 인센티브(추가이익) 또는 패널티(불이익)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느슨한 조직 내용을 갖고 있었다. 다만, 정관상에 조직범위를 1개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점, 공동선과, 공동판매, 공동계산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과 품질 검사에 이의가 있을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도록 한 점 등은 기존의 작목반 체계<sup>38)</sup>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7) 제주감귤농협(2004) p24 참조

38) 강경선(2000) p111 “감귤작목반의 대부분은 감귤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속지형’이며 따라서 작목반의 활동(예컨대 선과)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감귤작목반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이용(선과장)중심의 협업조직체로서 현재 공동판매는 공통기준에 의한 개별계산, 판매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함.

이러한 조직 내용의 한계<sup>39)</sup>와 특징은 작목반 선과장의 경우는 투자와 소유에 있어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작목반원들의 출연(出捐)에 의해 토지 및 건물, 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APC의 경우 해당농협이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와 소유가 농협의 전체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명확치 않은 점과 아울러 설립 당시의 시점에서는 시설규모와 처리용량이 상대적으로 크에 따라 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이 되어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APC이용조직이라고는 하나, 계약관계 형성 또는 의무출하물량 설정 등의 의무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조직형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APC 이용조직의 이용실태분석

<표Ⅲ-8> ‘불로초협의회’(이용조직)회원의 감귤농협 APC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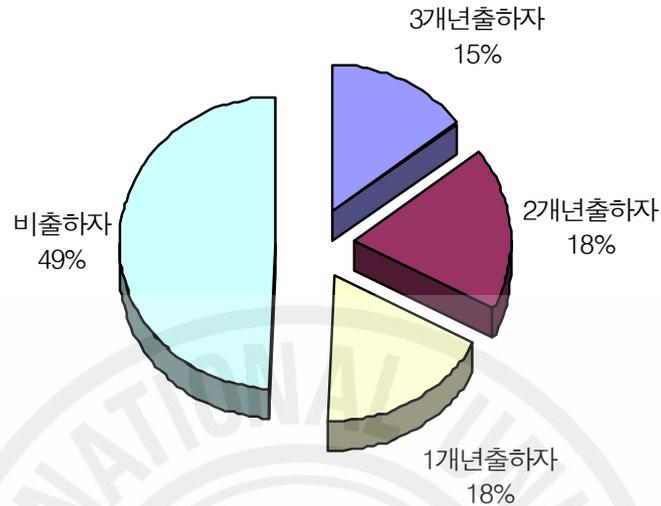
가입회원수	3개년이용자수	2개년이용자수	1개년이용자수	비이용회원수
277명	41명	50명	50명	136명

<표Ⅲ-8>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조직 회원들의 이용형태를 보면 전체회원의 15%인 41명이 3개년도 연속이용형태를 보였으며, 18%인 50명이 2개년도 이용형태, 1개년 이용자수는 50명으로 18%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136명으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원 중 이용하지 않은 회원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출하물량도 없고, 계약물량도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조직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APC를 운영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통시설 이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모집되었을 개연성 또한 있

39) 최용주(2007)는 기업경영체,하이브리드형 조직, 공동정산조직 등은 그 운영원리상 참여자의 무임승차(Free Rider)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체계,보상체계,계약,동료압박(Peer Pressure),명시적 합의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도덕경제적 유대에 기초한 영농협력활동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규모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의 외부경제(Network Externality)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자본주의 하 소농경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전형 사례로 분석함.

<그림 III-6> '불로초협의회'(이용조직)회원의 감귤농협APC 이용현황



<표 III-9> 전체이용자와 이용조직의 연산별 등급별 노지감귤 출하량비율(단위: %)

구분	'03년산 노지감귤	'04년산 노지감귤	'05년산 노지감귤	합계	
전체 이용자	불로초	13.0	14.5	11.5	12.8
	굴림원	29.0	41.8	23.2	30.8
	기타	58.0	43.7	65.3	56.4
	합계	100	100	100	100
이용 조직	불로초	6.1	13.8	9.9	9.0
	굴림원	31.7	16.0	17.3	18.5
	기타	62.2	70.2	72.8	72.4
	합계	100	100	100	100

주 1) 전체이용자 : 2003년산,2004년산,2005년산 노지감귤 출하자  
 2) 이용조직 : 전체회원 277명 중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111명

었던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표 III-9>는 3개년산('03,'04,'05년산)노지감귤을 출하한 전체이용자와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동시기에 노지감귤을 출하한 회원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출하비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용조직의

공동브랜드(블로초, 굴림元)출하비율이 전체이용자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이용조직의 구성이 기존 공동브랜드 출하비율이 높거나, 브랜드생 산 조건이 유리한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화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귤농협 APC 3개년도 전체이용자 중 이용조직(블로초협의회)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인 141명이며, 비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5.1%인 806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비율들은 <표Ⅲ-10>와 같다.

<표Ⅲ-10> 감귤농협APC 3개년도('03,'04,'05년도) 이용자 현황(단위:명, %)

구분	협의회회원		비회원		합계	
	이용자수 (A)	비율 (A/C)	이용자수 (B)	비율 (B/C)	이용자수 (C)	비율 (C/946)
3개년 이용자	41	32.5	85	67.5	126	13.3
2개년 이용자	50	17.4	238	82.6	288	30.5
1개년 이용자	50	9.4	482	90.6	532	56.2
계	141	14.9	806	85.1	946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3개년 이용자 집단 126명 중 이용조직회원은 41명으로 32.5%, 2개년 이용자 집단의 경우는 288명의 전체 이용자 중 50명으로 17.4%, 1개년 이용자 집단은 전체 532명 중, 50명으로 9.4%로 분석되었다. 전체 APC 이용자에 비해 이용조직 회원 중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들이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번 APC 이용을 시작한 회원들의 지속출하비율이 비회원의 지속출하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동기, 이유이든 간에 초기년도에 APC를 이용한 이용조직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출하지속비율이 높다는 점은,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조직(블로초협의회)이 출하행위에 있어서 거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출하행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일정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표Ⅲ-11> ‘불로초협의회’ 회원 이용형태별 연령분포(단위 : 세,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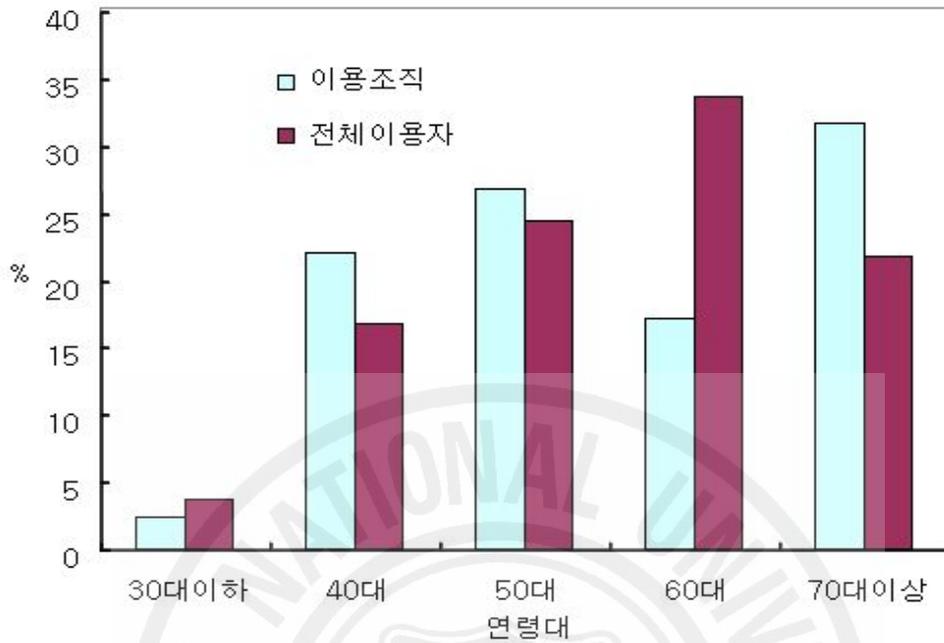
구분		39이하	40~49	50~59	60~69	70이상	전체
3개년이용자	인원	1	9	11	7	13	41
	%	2.4	22.0	26.8	17.1	31.7	100
2개년이용자	인원	4	6	10	22	8	50
	%	8	12	20	44	16	100
1개년이용자	인원	1	8	14	16	11	50
	%	2	16	28	32	22	100
비이용자	인원	-	14	34	55	33	136
	%	-	10.3	25.0	40.4	24.3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한 대목이다.

품목에 관계없이 이용조직 회원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연령대를 분석하면, <표Ⅲ-11>과 같다. 앞 절에서 제주감귤농협 조합원의 연령 분포나 3개년 APC 이용자의 연령 분포는, 60대를 정점으로 하여 다른 구간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며, 각 구간별 비중의 차이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체 APC이용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분포와 비슷하게 60대가 33.6%로 분석되어, 60대를 정점으로 좌우로 적어지는 분포를 보이거나,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연령별 분포도에서는 70대의 비중이 31.7%인 반면, 60대의 비중이 17.1%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분포현상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그림Ⅲ-7>과 같다.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 중 60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70대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점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APC이용조직의 이용율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거나, 세대별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그림 III-7> 전체이용자와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의 연령분포 비교



다음으로,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회원들의 이용형태별 전체 경작재배규모 분포현황을 <표III-12>에서 살펴보면 전체 회원 비중에서는 1.5~2.0ha 구간의 분포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0.5~1.0ha 구간이 20.6%, 1.5~2.0ha 구간이 17.3%인 반면에,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 1.0ha~1.5ha 구간의 분포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동일하나, 다음으로는 1.5ha~2.0ha 구간이 21.9%, 2.0ha~2.5ha가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회원들의 분포도와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분포도를 1.0~2.0ha 구간<sup>40)</sup>으로 끊어서 비교 분석할 때 각각 46.3%, 46.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40) 현공남·유영봉(1995)은 “감귤농업의 생산구조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생산규모별 효율성과 규모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감귤의 생산구조는 비료 및 농약의 경상재 투입과 노동투입에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생산관계의 검토로부터 기술 분리형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토지기술함수(S함수)와 노동기술함수(L함수)를 계측함으로써 감귤생산구조를 확정지었다. 그 결과 3천평 이하의 소규모 층과 5천평 이상의 대규모층에서 효율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균형조건으로부터 균형임금과 균형지대를 계측하여 규모별 생산효율성을 검토하고 규모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1.5ha~2.0ha 수준의 규모 층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 지표가 나왔고, 부부 2인 가족의 전업농의 경우 약 5~6천평 정도가 현재의 생산기술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표 III-12> ‘불로초협의회’ 회원 이용형태별 재배규모<sup>1)</sup> 분포(단위 : ha,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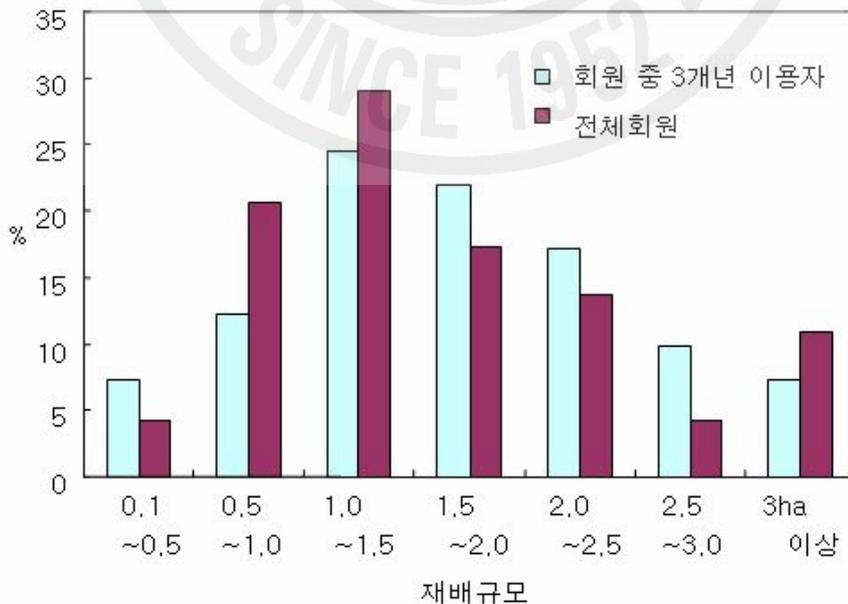
구 분		0.1 ~0.5	0.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ha 이상	계
3개년 이용자	인원	3	5	10	9	7	4	3	41
	%	7.3	12.2	24.4	21.9	17.1	9.8	7.3	100
2개년 이용자	인원	5	8	19	8	6	1	7	50
	%	10	16	38	16	12	2	14	100
1개년 이용자	인원	-	12	14	6	19	1	9	50
	%	-	24	28	12	38	2	18	100
비이용자	인원	8	32	37	25	17	6	11	136
	%	5.9	23.5	27.2	18.4	12.5	4.4	8.1	100
전 체	인원	12	57	80	48	38	12	30	277
	%	4.3	20.6	28.9	17.3	13.7	4.3	10.8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판매과

주) 1. 재배규모는 감귤류 전체를 포함한 것이며,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를 포함한 것임.

하지만 1.5~3.0ha 구간을 잘라서 비교할 경우에는 3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분포와 전체회원의 분포가 48.8%, 35.3%로 나타나 13.5%의 차이를 보이며, 이 구간 내에서는 면적이 작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III-8>이용조직 전체회원과 3개년연속이용회원의 재배규모별 비중분포비교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림-8>과 같다. 전체회원의 재배면적은 1.5ha 미만 구간까지는 3개년 이용회원들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1.5ha~3.0ha미만 구간에서는 3개년 이용자들의 분포비율이 전체회원의 분포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에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농협 APC 이용율은 감귤품목과 재배형태와 상관없이 총재배 규모 분포에서 이용형태별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Ⅲ-13>은 불로초협의회 회원 277명중에 3개년도<sup>41)</sup> 동안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중에 '03년산부터 '04년산, '05년산까지 3개년산<sup>42)</sup>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1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며, 자료의 출처는 회원가입원서에 기반한 것이다. 자료 중 노지감귤재배면적은 14개의 결측치가 있었으며, 출자금은 7개의 결측치가 있었으며, 출하대금의 기준은 경락단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1인당 평균노지감귤 재배면적과 하우스면적을 포함한 1인당 평균면적을

<표Ⅲ-13>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자 분석<sup>1)</sup>

구분	인원 (명)	1인당 노지감귤 재배면적 (ha)	1인당 평균 생산면적 <sup>2)</sup> (ha)	1인당 평균 출자금 <sup>3)</sup> (천원)	연령 (세)	3개년산 1인당평균 출하물량 <sup>4)</sup> (톤)	3개년산 평균 출하대금 <sup>5)</sup> (천원)	3개년산 평균 출하단가 <sup>6)</sup> (원/kg)
3개년산 연속이용자	29	1.56	1.76	1,419	62.17	36	51,987	1,362
2개년산 이용자	28	1.69	1.77	1,268	62.32	17	20,351	1,236
1개년산 이용자	54	2.17	2.18	1,397	57.17	6	6,933	1,136
전 체	111	1.83	1.96	1,384	59.77	16.7	22,088	1,219

- 주) 1. 3개년산 노지감귤은 2003년산, 2004년산, 2005년산 노지감귤을 말함.  
 2. 하우스면적과 노지감귤면적을 합친 1인당 재배면적임.  
 3. 출자금은 2006년 말 기준, 제주감귤농협에 출자되어 있는 금액임.  
 4. 3개년산 1인당 평균출하물량= 이용자 총물량/인원  
 5. 3개년산 평균출하대금=이용자총출하대금/인원  
 6. 3개년산 평균출하대금=3개년산 출하대금/3개년산 출하물량

41) 3개년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임.

42) 3개년산은 노지감귤 출하가 2개년도에 걸쳐서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로, 03년산 노지 감귤이라 함은 03년도에 꽃이 피고, 열매를 수확하여 출하하기 시작하여, 익년 3월 경에 출하가 마무리되는 것을 지칭함. 따라서 3개년산은 03년산 노지감귤, 04년산 노지감귤, 05년산 노지감귤을 포함함.

보면 연속이용자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개년산 1인당 평균출하물량, 금액, kg당 단가에서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당 평균출자금의 경우는 2006년말 현재 제주감귤농협 평균출자금인 104만원인 점에 비추어 각 구간별 평균출자금이 전체 평균출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구간별로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과 1개년산 이용자 집단이 111명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2개년산 이용자 집단의 출자금규모는 전체 111명의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산 이용자 집단의 연령이 평균이상이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의 연령은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표Ⅲ-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개년산 이용자 집단에서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평균단가가 올라가면서 출하물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배면적의 경우 평균면적보다 적어질수록 출하물량, 출하금액, 출하단가 등이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자금과 연령은 제표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표Ⅲ-14> 2005년산 불로초협의회원 노지감귤 등급별 경락단가비교<sup>1)</sup>

구 분	전체평균 경락단가	불로초평균 경락단가	귤림원평균 경락단가	일반품평균 경락단가	제주도 전체평균 경락단가
2005년산 노지감귤	1,563원	3,303원	1,633원	1,060원	1,186원
단가비교	131%	279%	138%	89%	100%

주) 1.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2005년산 노지감귤출하실적이 있는 회원 5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며, 경락단가 계산방식은 (금액/물량)임.

<표Ⅲ-14>는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2005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회원들의 노지감귤의 등급별 경락단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전체 평균 경락단가는 제주도 전체 평균 경락단가 대비 131%로 높게 형성되었고, 불로초의 경우는

279%, 굴림원은 138%로 나타났으나, 일반품의 경우는 89%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락단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면 브랜드 등급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3장 1절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서 분석했듯이 브랜드등급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브랜드등급 생산 출하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출하처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 회원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 3. 요약

제3장에서는 감귤농협 APC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분석과 이용조직인 불로초협회의 구성현황과 이용실태분석을 하였다. 먼저 APC이용자들의 이용실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품목별 이용자 현황 분석 결과, '03년도 이용자는 총 421명, '04년도 총이용자는 769명, '05년도 총 이용자가 75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물량과 금액, 품목,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관계없이 1회 이상 출하한 이용자는 총 94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조합원 이용자는 877명으로 점유율 92.7%, 비조합원 이용자는 69명으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PC의 판매현황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 품목별 평균출하물량을 산출한 결과, '04년도 노지감귤 출하증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하금액에서도 '04년도 노지감귤과 비가림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연도별 품목 및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따른 중복출하자를 제외한 1인당 평균출하물량 분석에서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는 APC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출하물량 또한 매해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

다. 바꾸어 표현하면 새로운 유통시설과 유통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수탁노지감귤의 농가수취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03년도 66.1%에서 시작하여 '04년도 71.5%, '05년도 78.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로써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비용은 하락하고, 농가수취가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들의 년도별 출하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어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이용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용자는 이용을 했다가, 지속, 중단하거나, 또는 중단했다가 다시 이용을 재개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형태가 나타나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지속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관여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3개년도 이용자 집단을 이용형태별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감귤농협 전체 조합원의 연령별 분포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개년 이용자 집단과 1개년 이용자 집단의 경우도 약간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PC이용자들 중 노지감귤 공동브랜드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이용자를 분류한 결과, 3개년 이용자 집단이 공동브랜드 출하자가 가장 많으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가 공동브랜드에 합격 출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역으로 2개년 이용자 집단, 1개년 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브랜드 합격 출하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 합격률과 이용형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APC이용조직의 구성현황과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APC이용 조직인 “블로초협의회”는 개장 이전에 27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연령은 61.36세로 대체적으로 조합원 평균 연령대와 비슷한 분포대를 갖고 있었으며, APC 3개년 이용자들과도 비슷한 연령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 초기 가입회원들의 영농규모는 제주도 호당 재배면적 비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재배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가입자격 기준이 소유에 관계없이 감귤경작면적이 1,5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규모가 일반감귤재배 농가들에 비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하였다.

감귤농협 APC이용조직은 기존의 작목반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인원을 갖고 출발이 되어졌지만, 가입이 자유로운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의무출하물량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APC이용조직 회원으로서의 별도의 인센티브(추가이익) 또는 패널티(불이익)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느슨한 조직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용조직 회원들의 이용형태를 보면 전체회원의 15%가 3개년도 연속이용형태, 18%가 2개년도 이용형태, 1개년 이용자수는 18%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원 중 이용하지 않은 회원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은 의무출하물량도 없고, 계약물량도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조직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APC를 운영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통시설 이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모집되었을 개연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어졌다.

하지만, 전체 APC 이용자 집단에 비해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번 APC 이용을 시작한 회원들의 지속출하비율이 비회원의 지속출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따라서 어떠한 동기, 이유이든 간에 초기년도에 APC를 이용한 이용조직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출하지속비율이 높다는 점은, 불로초협의회가 출하행위에 있어서 거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출하행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일정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품목에 관계없이 이용조직 회원을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APC이용자의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경우는 전체이용자의 분포와

비슷하게 60대를 정점으로 좌우로 적어지는 분포를 보이나,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연령별 분포도는 70대의 비중이 높고 60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전체적인 분포현상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중 60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70대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점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APC 이용조직의 이용율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거나, 세대별 특징이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 회원들의 이용형태별 전체 경작재배규모 분포현황 분석 결과, 전체회원의 재배면적은 1.5ha 미만 구간까지는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1.5ha~3.0ha미만 구간에서는 3개년 이용자 집단의 분포비율이 전체회원의 분포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농협 APC 이용율과 관련하여 감귤품목과 재배형태와 상관없이 총재배규모의 분포에서 이용형태별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회원 277명중에 3개년도 동안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중에 '03년산부터 '05년산까지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1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인당 평균노지감귤 재배면적과 하우스 등을 포함한 1인당 평균면적에서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개년산 1인당 평균출하물량, 금액, kg당 단가에서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당 평균 출자금의 경우는 2006년말 현재 제주감귤농협 평균출자금인 104만원인 점에 비추어 각 구간별 평균출자금이 전체 평균출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구간별로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과 1개년산 이용자 집단이 111명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2개년산 이용자 집단의 출자금규모는 전체 111명의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는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 이용자 집단의 나이가 평균이상이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의 연령이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출자금과 연령은 제표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2005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회원들의

노지감귤의 등급별 경락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경락단가는 제주도 전체 평균 경락단가 대비 131%로 높게 형성되었고, 블로초의 경우는 279%, 귤립원은 138%로 나타났으나, 일반품의 경우는 89%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락단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면 브랜드 등급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수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3장 1절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서 분석했듯이 브랜드등급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브랜드 기대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출하처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용조직인 블로초협의회 회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APC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용자의 수취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브랜드합격여부 또는 그 물량의 정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이용농가의 재배면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었고, 출자금과 연령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다.

## IV.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의 출하행위 분석

### 1. APC이용조직 회원의 출하요인 검토

본 연구의 대상인 감귤농협 APC(서귀포시 토평동 위치, 현 제주감귤농협 제1유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특징과 경제적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작목반 중심의 전통적 선과장에서 현대적선과장(대형패킹하우스)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과도기적 유통시설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외관 중심의 품질판정 방식에서 내부품질(당도, 산도)을 기준으로 한 품질등급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셋째, 품질등급판정방식은 입고된 과실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에 의한 파괴식 검사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산방식은 점수제 공동계산제 방식을 적용, 운용하였으며, 적용범위는 4개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에 대하여만 적용하였다.

다섯째, 상위 2등급의 공동브랜드(블로초, 궤림元)는 제주감귤의 평균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감귤농협 APC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장 전 이용조직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이용조직원에게 의무출하물량이나, 출하에 따른 인센티브(추가이익) 또는 비출하에 따른 패널티(불이익)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비회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개방하였다. 따라서 APC사업에 대한 중요도 등에 대하여 운영주체들이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출하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개별농가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 이용의 조건 속에서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통하여 APC 출하결정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요인은 수취가격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불로초, 굴림元의 공동브랜드 경락단가들이 일반감귤의 1.5배~2.5배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러한 등급으로 출하를 많이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이용을 많이 할 것이며, 이용량도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격을 갖고 출하행위를 한 농가들 중에 등급판정에서 브랜드급으로 판정받지 못할 경우, 일반품으로 출하하게 되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05년산의 일반품의 가격이 도내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하물량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품질기준은 제주도 전체 감귤의 평균품질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귤나무의 특성상 1개의 나무에서도 달린 위치에 따라서 내부품질이 다르며, 1개의 과실에서도 앞뒤, 위아래의 내부품질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품질판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수확단계에서 구분수확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완숙과 중심의 구분수확은 무차별적인 수확방식에 비해 노동력 투하가 많으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개별 농가의 노동력 투하정도에 따른 생산면적의 크기가 이용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품질 판정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APC로 전량을 출하하기 보다는 좋은 품질의 상품은 APC로 출하하고 나머지는 작목반 출하 또는 상인판매 등의 이중적 출하행위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무작위 추출을 할 때 이용자가 납득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포기하고, 상인판매 등의 출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모험심이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무작위 샘플링이라는 품질판정방식의 특성상 수확노동력의 투하가 많은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장 이용실태 분석에서는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산 연속 출하자 집단의 연령비율에서 7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감귤농업의 제1세대로서 갖는 세대별 특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sup>43)</sup> 다

43) 제주감귤농업이 본격적으로 상업적 경영을 시작한 시기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기인 만큼, 70대의 연령층이 처음으로 감귤농업을 상업화한 세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과원을 조성하고 판매망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세대로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만 이용과 관련하여 연령 또는 특정 세대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용조직을 초기 구성할 때 조직대상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해당농협의 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이용도가 높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용조직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APC건립, 운영이 해당 농협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해당농협에 대한 몰입도<sup>44)</sup> 또는 충성도가 높을 수록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외에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개별농가의 상시 노동력 인구수, 임차노동력의 문제, 과원의 지리적 위치, 소속작목반과의 내부규정, 규율의 문제 등의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APC이용조직의 출하결정요인을 분석, 검증하기 위하여 3년간 품목과 출하방법에 관계없이 1회 이상 APC를 이용한 이용조직 회원 141명 중, 제2장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출하품목 중 물량과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111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APC이용조직의 출하결정요인을 분석, 검증하고자 한다.

## 2. 이용조직 회원 중 감귤농협APC 이용농가 설문분석

### 1) 조사의 개요

APC이용에 관한 설문지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0일 까지 이용조직(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중량과 품목에 관계없이 1회 이상 APC 이용실적이 있는 141명에서 노지감귤 이용실적이 있는 111명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44) 방하남·김상욱(2005)은 p1에서 “조직 몰입도(組織 沒入度, Organizational Commitment)는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추구에 대한 강한 긍정적 믿음에 기초하여 그 조직을 위해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음.

목적은 APC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론하고 분석해보는 것이다.

설문결과 82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많은 2명을 제외하여 80개의 조사결과를 얻었다.

## 2) 조사대상자의 현황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 재배면적, 재배경력, 학력, 출자금, 전업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60대가 31.3%, 50대가 27.5%, 70대가

<표 IV-1> 조사대상 개인적 특성 이용년수구분

특 성	변 수	응답자수(명)	비율(%)
연 령	40세미만	3	3.8
	40~49세	15	18.3
	50~59세	22	27.5
	60~69세	26	31.3
	70세 이상	15	18.8
재배면적	1.0ha미만	21	26.3
	1.0~1.5ha미만	26	32.5
	1.5~2.0ha미만	12	15.0
	2.0~2.5ha미만	13	16.3
	2.5ha이상	8	10.0
재배경력	5년 이하	0	0
	5년~10년 미만	8	10.0
	10~15년 미만	13	16.3
	15~20년 미만	9	11.3
	20년 이상	50	62.5
학 력	초졸 이하	6	7.5
	중 졸	6	7.5
	고 졸	36	45.5
	대 졸	25	31.3
	대졸이상	2	2.5
	무 응 답	5	6.3
출 자 금	50만원 미만	13	16.3
	50~100만원 미만	21	26.3
	100~150만원 미만	21	26.3
	150~200만원 미만	16	20.0
	200만원 이상	9	11.3
전업여부	전업농	73	91.3
	겸업농	5	6.3
	부업농	2	2.5

18.8%를 차지하여, 제주감귤농협 APC 전체 이용자의 연령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재배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0~1.5ha미만 구간이 26명으로 32.5%, 1.5~2.0ha 미만 구간이 12명에 15.0%, 2.0~2.5ha 구간이 13명으로 16.3%를 차지하여, 1.0~2.5ha 구간에 전체 조사대상 중 63.8%로 조사되어 APC 3년 연속 이용자 집단과 비중과 분포순서에서 유사한 결과치가 나와, 이용률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배경력은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2.5%로 나타나 조사자 대부분이 재배경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8%를 차지하여 연령대와 비교하여 보면 보편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별 특이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출자금의 측면에서는 100만원 이상이 57.6%, 100만원 미만이 42.4%로 조사되었다. '06년도 제주감귤농협 평균출자금이 104만원 임을 감안하면 평균출자금 이상 출자자가 50%를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2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조합에 대한 몰입도 또는 사업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실적 또는 비료, 농약 등의 이용실적 등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농협에서 출자금은 이용고 배당과 연동이 되어있으며, 조합원들이 매년 배당을 받아가지 않고 누적 적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조합 사업에 대한 몰입도의 측정변수로 출자금 액수를 채택하는 것도 유의하다고 판단된다.

전업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1.3%가 전업농이라고 응답하여 응답자간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 3) 조사결과

제주감귤농협 APC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론적으로 공동브랜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79.3%가 잘한

다, 아주 잘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당도와 산도 측정치로 이루어지는 품질기준에 대하여도 90.0%가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결과의 표출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무작위 샘플링으로 이루어지는 품질판정방식에 대하여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23.8%인 반면, 불만족, 매우불만족이 52.5%로 나타나,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샘플링방식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는 역시 제2장의 분석결과와도 동일하며, 기계적 보완, 품질검사방법의 보완과 제도화 등을 통한 객관화 방법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PC를 이용하기 전과 중단 후 판매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IV-3>과 같다. APC 이용 중단 후 조합직영 선과장으로의 출하비율이 적어진 것이 특이하다. 작목반 출하비율도 떨어진 점과 연동하여 유추해 볼 때, 기대를 걸고

<표 IV-2> 공동브랜드사업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구 분	변 수	응답자수(명)	비율(%)
공동브랜드 사업전체 평가	아주 잘 못한다	2	2.5
	잘못한다	2	2.5
	보통이다	12	15.0
	잘 한다	31	38.8
	아주 잘 한다	33	41.3
공동브랜드 품질기준	아주 낮다	0	0.0
	낮 다	4	5.0
	적당하다	72	90.0
	높 다	3	3.8
	아주높다	1	1.3
공동브랜드 판정방식	매우 불만족	12	15.0
	불만족	30	37.5
	보 통	19	23.8
	만 족	16	20.0
	매우 만족	3	3.8
선과료 및 판매수수료 적정여부	아주 낮다	0	0.0
	낮 다	1	1.3
	적당하다	50	62.5
	높 다	24	30.0
	아주 높다	4	5.0
	무응답	1	1.3

<표 IV-3> APC출하 전, 후 판매처

변 수	구 분	APC출하 전 판 매 처		APC출하 중단 후 판 매 처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작목반 출하	29	36.3	12	30.0
	조합 직영 선과장	18	22.5	4	10.0
	포 전 거 래	1	1.3	3	7.5
	수확직후 상인판매	21	26.3	11	27.5
	저장 후 판매	10	12.5	1	2.5
	무 응 답	1	1.3	-	-
	전 체	80	100	40	100

APC이용을 하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기대가격의 불충족 등)으로 인해 중단하면서 일부가 상인판매 등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처음에 APC를 이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는 “불로초, 굴림원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2명으로 40%, “전체적으로 가격을 잘 받기 위하여”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명으로 26.3%를 나타내어, 가격적 요인에 의한 동기가 전체의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PC이용율에 가격적 요소, 브랜드품 출하로 인한 수취가격의 상승 등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상인거래에 환멸을 느껴서”, “다른 농협 계통 판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V-4> APC 이용동기

구 분	변 수	응답자(명)	비율(%)
이 용 동 기	불로초, 굴림원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32	40.0
	전체적으로 가격을 잘 받기위하여	21	26.3
	이용이 편리해서	10	12.5
	가까운 곳에 있어서	1	1.3
	조합의 권유에 의해서	11	13.8
	기 타	4	5.0
	무 응 답	1	1.3
	전 체	80	100

지금도 출하를 계속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40명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0명이 “출하를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여 각각 5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출하계속사유를 중요도에 따라 2개를 물었는데, 중요도 1번에 “블로초, 굴림원으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총 40명 중 24명으로 60%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적 요소인 “다른 곳보다 가격이 잘나오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합치면, 65%로 조사되었다.

APC출하를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40명에게 출하중단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동브랜드에 합격하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42.5%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이 전체적으로 잘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과 합할 경우에는 전체의 60%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포함한 가격적 요소의 충족, 불충족에 따라 APC이용을 계속하거나 중단 하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APC이용중단 사유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과수원의 타인에게 임대함’, ‘나이가 고령이라서 농사중단에정’, ‘무농약 및 친환경 감귤 판매가 안돼서’, ‘브랜드출하를 위해서는 수세가 약해짐’, ‘입고 후 출하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V-5> 출하계속사유

구분	변 수	응답자수1 (명)	응답자수2 (명)	비율(%)
출하계속사유	블로초, 굴림원으로 출하할 수있기 때문에	24	2	32.5
	다른 출하처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잘나오기 때문에	2	9	13.8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8	2	12.5
	시설과 선과기가 마음에 들어서	1	2	3.8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친절해서	1	2	3.8
	브랜드품질판정이 공정하기 때문에	1	1	2.5
	조합의 권유에 의해서	-	6	7.5
	블로초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1	5	7.5
	다른 출하처 거래가 마음에 안들어서	2	2	5.0
	무응답	-	9	11.2
	전체		40	40

출하동기와 출하 지속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감귤의 가격과 비교하여 2~3배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브랜드로 출하하기 위하여 농가들이 APC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중단사유에서도 역시 농가 수취 가격적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표IV-6> APC 이용중단 사유

구분	변 수	응답자수1 (명)	응답자수2 (명)	비율(%)
이 용 중 단 사 유	불로초, 굴림원에 합격하지 못해서	17	2	23.8
	다른 곳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7	5	15.0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5	4	11.3
	시설과 선과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	-	-
	직원들이 비전문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2	1	3.8
	브랜드 품질판정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3	5	10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	3	3.8
	기 타	6	13	23.8
	무 응 답	-	7	8.8
	전 체	40	40	100

### 3. APC 이용조직의 이용을 결정요인 검증

#### 1) 변수의 설정

APC 이용조직의 이용을 결정 요인검증을 위한 종속변수(Y)는 조사대상자의 APC 이용율로 측정하였다. APC 이용율은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APC \text{ 이용율} = \frac{\text{조사대상자의 APC 출하량}}{\text{조사대상자의 3개년산 노지감귤총생산량}} \times 100$$

종속변수(Y)인 APC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X)는

4가지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X1은 조사대상자의 브랜드생산출하율로 설정하였다. 이미 제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APC이용자와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출하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이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이 월등히 많고, 2개년, 1개년으로 내려갈 때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이용율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브랜드생산출하율} = \frac{(\text{블로초출하량} \times \text{가격가중치}) + \text{굴림원출하량}}{\text{조사대상자의 3개년산 노지감귤총생산량}} \times 100$$

브랜드 출하율이라고 하지 않고, 브랜드생산 출하율이라고 명명한 까닭은 현재 분석대상인 감귤농협APC의 품질평가제도가 샘플링 검사를 채택하고 있고, 이용조직인 블로초협회가 의무출하물량 또는 강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샘플링 검사방식은 출하하고자 하는 물량 1단위(1 Unit)가 전부 브랜드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지 못하거나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이러한 제도에 맞추어 본인이 생산하는 총물량 중에서 브랜드에 합격할 만한 물량만을 따로 뽑아내거나, 수확하여 가져오게 되는 출하형태를 띄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와 같이 1농가가 출하한 물량 중에 브랜드로 출하한 물량을 브랜드 출하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100개의 물량을 갖고 있는 농가가 블로초가 될 만한 물량을 구분 수확하여 1개를 APC로 운반하여 블로초로 출하한 경우, 이용율은 1%인데 반하여 브랜드출하율은 100%가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블로초 1kg과 굴림원 1kg은 중량에서는 같으나 가치 측면에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블로초브랜드와 굴림원 브랜드의 3년간 평균가격차인 1.6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X2는 조사대상자의 제주감귤농협 출자금 액수이다. 이는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APC사업의 규모, 자기자본투자율, 운영과정 등을 볼 때 전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간 것으로 평가되는 바, 조사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몰입도 또는 충성도에 따라 이용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X3는 조사대상자의 노지감귤 재배면적이다. 이러한 변수의 채택은 제3장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1.5~3.0ha 구간을 잘라서 보면 3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분포와 전체회원의 분포가 48.8%, 35.3%로 각각 나타나 13.5%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로 보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농협 APC 이용과 관련하여 감귤품목과 재배형태와 상관없이 총 재배규모의 분포에서 이용형태별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 분석변수로 삼는 것은 제3장과는 달리 노지감귤 재배면적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X4 는 조사대상자의 노동력과 세대별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연령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와 연령과 비례하는 재배경력에서 별다른 유의성과 선형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실적이 있는 불로초협의회 회원들의 이용형태별 연령분포를 분석한 결과, 3개년 연속이용자는 40대가 22.0%, 50대가 26.8%, 60대가 17.1%, 70대가 31.7%로 나타나, 불로초협의회 전체회원의 연령분포도, 제주감귤농협의 전체조합원 연령분포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대별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설문에서 조사되어진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품질관정에 대한 만족도 등은 더미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의 서문에 밝혔듯이 본 연구의 목적이 경제적 요인들만을 주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자료 및 분석방법

설정되어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dow를 사용하였으며, 회기분석방법은 변수들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 3) 분석결과

설정되어진 4개의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값이 나오지 않았고, 연령변수를 제외한 3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분석에서는

<표IV-7> APC이용률 결정 회귀추정 결과

종속변수 : APC이용률(Y)				
독립변수(X)	회귀값(B)	표준오차	베타( $\beta$ )	t-값
브랜드생산출하율(%)	.885	.102	.678	8.670***
출 자 금(원)	.041	.020	.174	2.045**
노지재배면적(ha)	-3.381	1.087	-.264	-3.111***
상 수	10.221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622(.605)			
F 값	37.767***			
Obs No	80			

\* p< .10, \*\* p<.05, \*\*\*p<.01

<표IV-7> 회귀추정결과에서 보듯이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sup>2</sup>이 0.605으로 나타났고, F값은 37.767이고 유의도는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모형을 신뢰할 수 있었다.

<표IV-7>회귀계수(a)에서 계수의 유의성을 보면 브랜드 생산 출하율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출자금은 유의확률이 0.045, 노지재배면적의 유의확률 0.003으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Beta를 통해서 본 각 변수의 중요도는 브랜드생산 출하율이 0.678로 3개의 변수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지감귤 재배면적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는 -0.264로 분석되어 브랜드생산출하율에 이어 APC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출자금의 경우는 0.174로 분석되었다.

회귀식은  $Y = 10.221 + 0.885X_1 + 0.041X_2 + (-3.381)X_3$  이다.

회귀값(B)을 통해서 보면 브랜드생산출하율과 출자금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브랜드생산 출하율이 높을수록 APC이용률이 높아지며, 출자금 액수가 많을 수록 APC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하지만 재배면적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작을수록

APC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들간의 기초 상관행렬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않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sup>45)</sup> <표IV-8>상관계수에서 보듯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무시하였다.

<표IV-8> 상관계수

		APC 이용률	브랜드 생산출하율	출자금	노지 재배면적
Pearson 상관	APC이용률	1.000	.752	.183	-.302
	브랜드생산출하율	.752	1.000	.178	-.165
	출자금	.183	.178	1.000	.425
	노지재배면적	-.302	-.165	.425	1.000
유의확률 (단측)	APC이용률	.	.000	.061	.005
	브랜드생산출하율	.000	.	.066	.082
	출자금	.061	.066	.	.000
	노지재배면적	.005	.082	.000	.

#### 4. 결과해석

회귀값(B)을 통해서 보면 브랜드생산출하율과 출자금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높은 수취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의 판정방식은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용조직의 경우 강제력이 거의 없으며, 감귤농가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APC에서 이용조직의 노지감귤 이용율은 브랜드생산 출하율이 많을수록 이용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45)김렬 외(2005) p193 참조

또한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은 필수적으로 수확단계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완숙과 구분수확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재배면적이 작을수록 이용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재배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수확시기의 한정으로 말미암아 수확에 따른 일손의 부족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샘플링에 의한 품질판정제도 하에서는 규모있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확기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동시에 도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샘플링에 의한 품질판정제도는 품질검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계적 보완, 품질검사 방법의 보완과 제도화의 문제 또한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합에 대한 몰입도의 한 표현이 출자금 액수가 많을 수록 APC이용조직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해당농협이 향후 유통전략과 방침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도 또는 충성도가 높은 조합원들의 행동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요약

제2장의 운영분석과 제3장의 이용실태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APC이용조직의 이용율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APC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불로초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 처음에 APC를 이용하게 된 동기분석과 출하계속, 출하중단 사유 분석에서 동일하게 불로초, 궤림元 출하를 위해 출하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고 있었으며, 또는 출하를 중단한 것으로 분석되어 APC이용율에 가격적 요소, 즉 브랜드 등급 출하로 인한 수취가격의 상승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배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0~1.5ha미만 구간이 26명으로 32.5%, 1.5~2.0ha

미만 구간이 12명에 15.0%, 2.0~2.5ha 구간이 13명으로 16.3%를 차지하여, 1.0~2.5ha 구간에 전체 조사대상 중 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APC 3년 연속 이용자와 비중과 분포순서에서 유사한 결과치가 나와, 이용률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출자금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 57.6%, 100만원 미만이 42.4%로 조사되었다. 06년도 말 제주감귤농협 평균출자금이 104만원 임을 감안하면 평균출자금 이상 출자자가 50%를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조합에 대한 몰입도 또는 사업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합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나, 출자금은 대부분이 이용고 배당과 연동이 되어있으며, 조합원들이 매년 배당을 받아가지 않고 누적 적립되는 경향이 강함으로 조합 사업에 대한 몰입도의 측정변수로 출자금 액수를 채택하는 것도 유의하다고 판단되어졌다.

연령의 경우 60대가 31.3%, 50대가 27.5%, 70대가 18.8%를 차지하여, 제주감귤농협 APC 전체 이용자의 연령분포와 2~3%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연령과 거의 연동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배경력에서도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3장의 이용실태분석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연령대별 분석에서 특이성이 발견되어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APC 이용율을 종속변수(Y)로 하고,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설문분석에서 이용률에 영향을 끼칠것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네가지 요인, 브랜드 생산 출하율, 출자금, 재배면적, 연령을 각각 X1(브랜드생산출하율), X2(출자금), X3 (노지감귤재배면적), X4(연령)를 독립변수로 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을 하였다.

검증결과, X1(브랜드생산출하율), X2(출자금), X3(노지감귤재배면적)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으며, X4(연령) 는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았다.

분석결과를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Y = 10.221 + 0.885X1 + 0.041X2 + (-3.381)X3$  이다. 이로써 감귤APC 이용율에 브랜드생산출하율, 출자금, 재배면적이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 브랜드 생산출하율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재배면적이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출자금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귀값(B)을 통해서 보면 브랜드생산출하율과 출자금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브랜드생산 출하율이 높을수록 APC이용률이 높아지며, 출자금 액수가 많을수록 APC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하지만 재배면적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작을수록 APC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브랜드가 정착되어 높은 수취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판정방식은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용조직의 경우 강제력이 거의 없으며, 감귤농가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APC에서 APC 이용조직의 노지감귤 이용율은 브랜드 생산 출하율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다음으로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은 필수적으로 수확단계에서 완숙과 구분 수확을 요구되어지는 만큼 재배면적의 대소에 따라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수확시기의 한정으로 말미암아 수확에 따른 일손의 부족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합에 대한 몰입도의 한 표현인 출자금 액수의 다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 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미

본 연구는 작목반 중심의 전통적 선과장 체제에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적 선과장으로 감귤유통시설 및 주체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시설 및 실험적 운영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감귤농협 APC(현 제1유통센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의 운영실태 분석과 3개년도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분석, 이용조직으로 구성되어있는 불로조합의 회 이용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를 통하여 감귤농협 APC 이용조직의 이용률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어진, 브랜드생산출하율, 출자금, 노지감귤재배면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APC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제2장에서 기능과 역할과 운영형태에 따라 선과장의 유형을 전통적 선과장, 과도기적 선과장, 현대적 선과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감귤농협 APC의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귤농협APC가 현대적 선과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선과장으로서의 경제학적 위치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음미하였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추론하였다. 그 결과, APC건설에 제주감귤농협의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농협의 전략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호응정도가 감귤재배 농가들의 APC이용율에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두 번째로 연도별 판매물량과 판매금액,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서 예전의 농협 판매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어졌으나, 매취사업의 확대 등으로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또한 주목하였다.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하는 사람에 따라 측정치의 변동가능성 문제, 입하 물량에 따른 샘플링 개수 또는 비율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의 확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A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와 불신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현대적 선과장들과 비교할 때 필지별 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관정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나가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성의 미비가 이용자들의 이용행위에도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셋째로는 공동브랜드에 합격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동브랜드로 출하했느냐에 따라, 감귤농협 APC를 이용을 자극하는 동기 또는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강력히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 사업은 고품질감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객관화시켰다는 점과 이러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 및 거래시장에 그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시킨 점과 아울러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 체계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 생산농가들의 고품질 생산의욕을 자극시킨 점, 타 농협들의 판매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촉진한 점 등은 기존의 전통적 선과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넷째로는 감귤농협APC의 점수제 공동계산제는 개별정산체제의 전통적 선과장에 머물러 있던 제주감귤 유통방식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동브랜드 공동계산의 경우 불로초와 굴림元을 통합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각 실시한 점과 유통센터 브랜드인 황금알과 일반품에 대하여는 공동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하였다. 다만 생산농가들의 완숙과 구분수확이라는 생산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없는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계들이 감귤농협 APC의 이용자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 세워,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까지 연결되는 수직적 계열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하였다.

이어서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품목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03년도 이용자는 총 421명, '04년도 총이용자는 769명, '05년도 총 이용자가 750명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품목과 출하방법에 따른 중복 출하자를 제외하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제주감귤농협 토핑 APC를 통하여 물량과 금액, 품목,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관계없이 1회 이상 출하한 이용자는 총 946명으로 분석되었다.

3개년도 출하자 946명에 대한 조합원 여부를 2007년도 5월말일 자로 조사한 결과, 조합원 이용자는 877명으로 점유율 92.7%, 비조합원 이용자는 69명으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이용 당시의 조합원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APC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을 개방한 점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하였다.

APC의 판매현황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 품목별 평균출하물량을 산출한 결과, '04년도 노지감귤 출하중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하금액에서도 '04년도 노지감귤과 비가림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3개년 동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각 년도별 품목 및 출하방법(수탁 또는 매취)에 따른 중복출하자를 제외한 1인당 평균출하물량을 산출한 결과, '03년도의 경우 6,700kg, '04년도 9,580kg, '05년도 9,744kg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금액 면에서도 1인당 평균 출하금액이 '03년도 10,295천원, '04년도 12,582천원, '05년도 23,153천원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에서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는 APC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출하물량 또한 매해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새로운 유통시설과 유통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귤농협 APC의 연도별 수탁노지감귤의 농가수취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03년도 66.13%에서 시작하여 '04년도 71.59%, '05년도 78.9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비용은 하락하고, 농가수취

가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들의 년도별 출하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는, 3개년도 연속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집단은 13.3%의 126명이었고, 2개년도 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집단은 30.5%의 288명이었다. 조사년도 중 1개년도만 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집단은 전체 이용자 중 56.2%의 532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어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이용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용자는 이용을 했다가, 지속, 중단하거나, 또는 중단했다가 다시 이용을 재개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형태가 나타나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지속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관여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개년도 이용자 집단을 이용형태별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자 전체의 연령대의 경우는 40대가 18.6%로 전체조합원 40대 연령비율이 15.7%인 점에 비추어 3%p 정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70대의 경우 전체 조합원 비중이 20.47%인데, 이용자의 70대의 비중은 16.2%로 4%p정도 적게 조사되었다.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 60대가 전체의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50대가 24.4%, 70대가 21.8%로 조사되었다. 제주감귤농협 전체 조합원의 연령별 분포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개년 이용자 집단과 1개년 이용자 집단의 경우도 약간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PC이용자들 중 노지감귤 공동브랜드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이용자를 분류한 결과, 3개년 이용자 집단이 공동브랜드 출하자가 가장 많으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경우가 공동 브랜드에 합격 출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역으로 2개년 이용자 집단, 1개년 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브랜드합격 출하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 합격률과 이용형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APC이용조직인 불로초협회의 구성현황과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APC이용 조직인 “블로초협의회”는 개장 이전에 27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최초 가입 회원별 연령별 분포 현황은 60대가 100명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50대가 69명으로 24.9%, 70대가 65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균연령은 61.36세로 대체적으로 조합원 평균 연령대와 비슷한 분포대를 갖고 있었다. APC 3개년 이용자들과도 비슷한 연령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로초협의회 초기 가입회원들의 영농규모는 제주도 호당 재배면적 비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재배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가입자격 기준이 자기 소유 또는 임대이든 간에 관계없이 감귤경작면적이 1,5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제주감귤농협 조합원 규모가 일반감귤재배 농가들에 비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연령적 특성과 영농규모의 특성을 가진 APC이용조직의 규모는 기존의 작목반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인원을 갖고 출발이 되어졌다. 그러나 초기 조직정관을 살펴보면 고품질 감귤생산에 대한 의욕이 있으면 가입이 자유로운 체계를 갖고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의무출하물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산지유통센터(APC)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회원으로서의 별도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느슨한 조직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정관상에 조직범위를 1개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점, 공동선과, 공동판매, 공동계산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과 품질검사에 이의가 있을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도록 한 점 등은 기존의 작목반 체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용조직 회원들의 이용형태를 보면 전체회원의 15%인 41명이 3개년도 연속 이용형태를 보였으며, 18%인 50명이 2개년도 이용형태, 1개년 이용자수는 50명으로 18%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136명으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원 중 이용하지 않은 회원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은 의무출하물량도 없고, 계약물량도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조직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APC를 운영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통시설 이용

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모집되었을 개연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어졌다.

하지만, 전체 APC 이용자 집단에 비해 이용조직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번 APC 이용을 시작한 회원들의 지속출하비율이 비회원의 지속출하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따라서 어떠한 동기, 이유이든 간에 초기년도에 APC를 이용한 이용조직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출하지속비율이 높다는 점은, 불로초협의회가 출하행위에 있어서 거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출하행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일정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품목에 관계없이 이용조직 회원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APC이용자의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의 경우는 전체이용자의 분포와 비슷하게 60대가 33.6%로 분석되었다. 즉 60대를 정점으로 좌우로 적어지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용조직인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연령별 분포도에서는 70대의 비중이 31.7%인 반면, 60대의 비중이 17.1%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분포현상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불로초협의회 회원 중 3개년 연속이용자 중 60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70대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점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APC 이용조직의 이용율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거나, 세대별 특징이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불로초협의회 회원들의 이용형태별 전체 경작재배규모 분포현황 분석 결과, 전체회원의 재배면적은 1.5ha 미만 구간까지는 3개년 연속 이용자 집단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5ha~3.0ha미만 구간에서는 3개년 이용자 집단의 분포비율이 전체회원의 분포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 APC 이용율과 관련하여 감귤품목과 재배형태와 상관없이 총재배규모의 분포에서 이용형태별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로초협의회 회원 277명중에 3개년도 동안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중에 '03

년산부터 '04년산, '05년산까지 3개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1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인당 평균노지감귤 재배면적과 하우스 등을 포함한 1인당 평균면적에서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개년산 1인당 평균출하물량, 금액, kg당 단가는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당 평균 출자금의 경우는 2006년말 현재 제주감귤농협 평균출자금이 104만원인 점에 비추어 각 구간별 평균출자금이 전체 평균출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간별로 구분하면, 3개년산 연속이용자 집단과 1개년산 이용자 집단이 111명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2개년산 이용자 집단의 출자금규모는 전체 111명의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는 3개년 연속이용자 집단과 2개년 이용자 집단의 나이가 평균이상이며, 1개년 이용자 집단의 연령이 평균이하로 분석되었다. 출자금과 연령은 제표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블로초협의회 회원 중 2005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있는 회원들의 노지감귤의 등급별 경락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경락단가는 제주도 전체 평균 경락단가 대비 131%로 높게 형성되었다. 블로초의 경우는 279%, 굴림원은 138%로 나타났으나, 일반품의 경우는 89%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락단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다보면 브랜드 등급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용행태에서 분석했듯이 브랜드등급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브랜드 기대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출하처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용조직인 블로초협의회 회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APC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용자의 수취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브랜드합격여부 또는 그 물량의 정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리고 이용농가의 재배면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었다. 또한 출자금과 연령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감귤APC 이용율을 종속변수(Y)로 하고,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설문분석에서 이용률에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네가지 변수, 브랜드생산출하율, 출자금, 노지감귤재배면적, 연령(더미변수)을 각각 독립변수 X1, X2, X3, X4로 설정하고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하였다.

검증결과, X1(브랜드생산출하율), X2(출자금), X3(노지감귤재배면적)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으며, X4(연령)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Y = 10.221 + 0.885X1 + 0.041X2 + (-3.381)X3$ 이다. 이로써 감귤APC 이용율에 브랜드생산출하율, 출자금, 재배면적이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 브랜드생산 출하율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재배면적이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출자금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브랜드가 정착되어 높은 수취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판정방식은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용조직의 경우 강제력이 거의 없으며, 감귤농가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APC에서 APC 이용조직의 노지감귤 이용율은 브랜드 생산출하율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다음으로 샘플링에 의한 검사방식은 필수적으로 수확단계에서 완숙과 구분 수확을 요구되어지는 만큼 재배면적의 대소에 따라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수확시기의 한정으로 말미암아 수확에 따른 일손의 부족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조합에 대한 몰입도의 한 표현인 출자금 액수의 대소에 따라 이용율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서문과 본문 중간에 언급을 하였지만 공간적으로는 감귤농협 토평 APC만을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만을, 내용 범위로는

감귤농협APC 이용조직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측면을 주분석 요인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현대 사회는 경제적 요인들만으로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은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설문분석의 경우, 이용조직 회원 중 이용을 하지 않은 136명에 대한 조사가 병행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초기 인입이 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과 아울러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전원 또는 감귤농가 전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감귤농협 APC는 작목반 중심의 전통적 선과장에서 현대적 선과장(대형패킹하우스 또는 거점산지 APC)로 유통중심, 주체가 변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과도기적 성격과 실험적 성격을 갖는 시설과 운영체라는 점과 시설을 운영하기 전 불로초, 굴림元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이미 감귤농협 차원에서 시작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설 되었다는 점, 또한 브랜드 품질관정 제도가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파괴식 검사로 관정을 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들이 전제가 되어있는 연구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APC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 또한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유통혁신, 개편의 중심에는 이용자들인 생산농가들이 유통혁신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판단하여 미흡하지만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APC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감귤이 APC로 집결되어야 하고, 집결된 물량들이 하나의 상품체계로 분류되고,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교섭력을 발휘하여 농가들의 수취가를 제고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APC로 수직적 조직화 체계로 집결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조직관행으로 미루어보아 일순간에 강력한 조직화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출하율이 높고, 조합 사업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강화시켜나가는 방법 또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되어진다.

향후 2006년 말 완공, 운영되고 있는 2만톤 처리물량 규모의 비파괴 광센서로

품질을 판정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들의 운영 자료가 축적되어 분석되어진다면, 산지유통센터(APC)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율에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심도있게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강동일·고성보·강지용 『NIR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내부품질평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강경선, 『농업생산자조직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고성보, 강동일, 강지용, 『산지유통센터 경제분석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김렬·성도경·이환범·송건섭·조태경·이수창,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범문사, 2005.
- 김정주·안상돈·김만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투자분석” 『건국대자연과학 연구지』 2004.
- 김창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창원대석사, 2001.
- 농림부, 『2005 산지유통혁신 국제 심포지움』 농림부·농협, 2005.
- 농식품유통연구원,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발전방향』 농협중앙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0.
- 농협중앙회, 『공동계산제 우수사례집』 2004.
- 방하남·김상욱,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결정구조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유영봉,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2000년 제주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종합보고서 PART2』 감귤류수입관리 운영위원회, 2000.
- 유영봉, 『한·일자유무역협정대비 감귤산업대처방안』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2005.
- 유효정, “DEA를 이용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성분석” 전북대 석사, 2005.
- 임종원·박형진·강명수, 『마케팅조사방법론』 도서출판 대명, 2001.
- 전상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지역농업네트워크, 『작목반과 일체화된 조합 판매사업 활성화방안』 2003.
- \_\_\_\_\_, 『거점APC 과일선선 편이시설의 최적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 불로초· 귤립元 출하상황 및 최종분석보고서』  
2002.
- \_\_\_\_\_a, 『2003년산 공동브랜드분석집』 2004.
- \_\_\_\_\_b, 『제주감귤농협 2003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2004.
- \_\_\_\_\_, 『2004년산 공동브랜드분석집』 2005.
- \_\_\_\_\_a, 『2005년산 공동브랜드분석집』 2006.
- \_\_\_\_\_b, 『감귤원예 5·6월호』 2006.
- \_\_\_\_\_, 『2006년산 공동브랜드분석집』 2007.
- 제주농협지역본부, 『2003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2004.
- \_\_\_\_\_, 『2004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2005.
- \_\_\_\_\_, 『2005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2006.
- 제주특별자치도, 『2006 주요 농축산 현황』 2006.
- 최용주, “현대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농협경제연구소,  
2007.
- 최우항, “2004직지농협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방안”경북대 석사, 2004.
- 황수철 · 황의식, 『지역농협의 조합원 참여 활성화방안』 농정연구센터, 2001.
- 현공남 · 유영봉, “제주감귤의 생산구조와 효율성 분석”『농업정책연구』 제22  
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1995.
- 현공남 · 유영봉,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 아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4.



질문5. 토평유통센터의 선과료는 2005년도까지는 상자당 700원이고 판매 수수료는 2%이었는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아주 낮다 ② 낮다 ③적당하다 ④높다 ⑤아주 높다

질문6. 제주감협의 공동브랜드인 불로초, 글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잘 못한다 ②잘 못한다 ③보통이다 ④잘한다 ⑤아주 잘한다

질문7. 제주감협의 공동브랜드 품질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지감귤 불로초는 당도11브릭스 이상, 산도 1%미만이고, 글림원은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 1%미만인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아주 낮다 ② 낮다 ③적당하다 ④높다 ⑤아주 높다

질문8. 브랜드 품질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품질관정(불로초, 글림원, 일반품)은 무작위로 감귤을 뽑아낸 후 파괴식 당산도 동시 검사기계를 통하여 하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질문9. 제주감귤농협 APC(토평유통센터)를 통해 출하를 하시기 전에는 감귤판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작목반 ②조합 직영 선과장 ③포전거래(발떼기거래)  
④수확 직후 상인판매 ⑤저장 후 판매

질문10. 귀하가 토평유통센터를 처음 이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불로초,글림원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②전체적으로 가격을 잘 받기위하여  
③이용이 편리해서  
④가까운 곳에 있어서  
⑤조합의 권유에 의해서  
⑥기타( )

질문11. 지금도 토평유통센터로 출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 ①하고 있다 ②하지 않고 있다.(질문15번으로 이동)

질문12. 출하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2개 선택)

- ①불로초, 글림원으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②다른 출하처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잘 나오기 때문에



## 부록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현황

### 1. 산지유통센터 건설경과

1992년 이전에는 정부가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을 발전된 유통시설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1992년부터 정부는 청과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산지에서 표준규격품 출하를 유통하고, 집하, 세척, 선별, 포장, 예냉, 저장, 가공 등 유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 건립계획에 의거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1992~93년간 25개 농협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건립하게 되었다.

1994년 농안법 과동 이후 수립된 “1994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별세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 포장센터 및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에서는 소비지에 물류센터 16개소, 산지에는 2004년까지 포장센터 160개를 건립키로 하여 농산물 유통에 “신유통”의 시설물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5년 까지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사업과 포장센터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었으며, 청과물 종합처리장은 3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단순한 산지유통기능은 물론 가공, 공판기능까지 담당하는 시설물로 현재 경북 안동, 전남 나주, 경남 거창 등 3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1996년 이후에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사업이 포장센터 건립 사업과 통합되었으며, 이후 매년 20~30개의 포장센터가 건립되어 왔으며, 1998년에는 101개의 포장센터(종합유통시설 포함)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평가대상으로 되었으며, 1999년에는 29개(농협15, 영농조합법인 14)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1998년부터 정부는 포장센터의 역할을 선별포장에서 벗어나 공동규격출하, 유통정보 수집전파, 브랜드개발 등 산지의 종합적인 유통거점시설로 개념을 확대해

명칭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로 변경하였으며, 건설목표도 기존의 2004년 160개에서 2002년 220개소 확대하였다.<sup>46)</sup>

## 2. 산지유통시설의 현황

<부표Ⅱ-1>부터 <부표Ⅱ-9>까지는 2006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APC를 비롯한 산지유통시설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며, 출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 at.or.kr)의 자료이다.

<부표Ⅱ-1> 산지유통시설의 지역별 개소수<sup>1)</sup> (단위 : 개소)

구분	계	산지유통센터 <sup>2)</sup>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경매식집하장
계	19,356	317	14,817	594	873	601	2,060	65	29
부산	21	3	11	-	-	-	7	-	-
대구	39	1	22	-	-	-	16	-	-
인천	153	-	153	-	-	-	-	-	-
광주	89	2	73	3	1	1	9	-	-
대전	26	1	24	-	-	-	1	-	-
울산	118	4	86	3	18	2	5	-	-
경기	1,802	14	1,695	37	17	2	35	1	1
강원	2,165	28	1,799	29	3	5	267	33	1
충북	1,248	8	893	155	16	2	171	3	-
충남	1,978	45	1,204	52	14	16	635	9	3
전북	1,999	22	1,688	67	43	23	155	-	1
전남	3,318	54	2,798	84	27	115	235	4	1
경북	3,758	80	3,335	63	27	51	196	2	4
경남	1,778	38	925	81	84	382	237	13	18
제주	864	17	111	20	623	2	91	0	0

주 1) 본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6.12.31기준으로 하여 발표한 산지유통시설 현황자료임

2) 산지유통센터 317개소

○정부지정 산지유통센터 : 236개소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25개, 청과물 종합처리장 3개 포함

- 253개소 중 미완공 및 사업포기 17개소 제외

○기타산지유통센터 : 81개소

- 지자체지원 산지유통센터, 관리시설, 동시지원 복수시설 등

46) (사)농식품유통연구회,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발전방향』 농협중앙회, p8~

<부표 II-2> 산지유통시설의 지원연도별,지역별 개소수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1996 이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9,356	3,734	1,133	899	717	909	976	1,302	1,567	1,805	2,418	2,363
부산	21	19	-	-	1	1	-	-	-	-	-	-
대구	39	16	1	-	2	-	-	-	1	1	1	2
인천	153	-	-	1	1	3	4	6	12	7	55	64
광주	89	7	16	20	13	8	2	6	2	1	3	9
대전	26	1	9	2	2	2	1	4	1	1	3	-
울산	118	55	13	10	-	1	4	10	2	-	1	1
경기	1,802	675	187	164	168	175	8	53	50	161	114	27
강원	2,165	343	188	181	55	109	115	223	206	205	263	268
충북	1,248	134	121	44	80	40	92	113	100	152	164	208
충남	1,978	734	91	108	55	99	115	127	135	119	269	108
전북	1,999	343	67	49	57	55	73	83	189	269	372	411
전남	3,318	378	188	123	52	117	277	222	382	343	582	629
경북	3,758	316	131	139	131	203	226	312	311	457	430	397
경남	1,778	498	61	39	87	94	54	138	175	87	157	226
제주	864	215	60	19	13	2	5	5	1	2	4	13

<부표 II-3> 산지유통시설의 지역별 시설면적 현황

구분	계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기타시설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계	2,670,216	19,356	517,586	1,467	786,996	14,817	84,845	601	1,280,789	2,471
부산	5,535	21	-	-	786	11	-	-	4,749	10
대구	14,582	39	-	-	9,086	22	-	-	5,496	17
인천	2,893	153	-	-	2,893	153	-	-	-	-
광주	11,969	89	1,793	4	2,556	73	165	1	7,455	11
대전	3,207	26	-	-	1,305	24	-	-	1,902	2
울산	26,481	118	6,495	21	5,513	86	142	2	14,331	9
경기	173,935	1,802	13,702	54	114,306	1,695	175	2	45,752	51
강원	183,976	2,165	6,311	32	52,271	1,799	24,574	5	100,820	329
충북	136,723	1,248	36,952	171	52,862	893	202	2	46,707	182
충남	287,636	1,978	22,683	66	45,385	1,204	2,390	16	217,178	692
전북	204,750	1,999	34,888	110	76,843	1,688	1,396	23	91,623	178
전남	465,693	3,318	98,806	111	82,950	2,798	3,418	115	280,519	294
경북	458,759	3,758	36,801	90	198,864	3,335	1,841	51	221,253	282
경남	406,740	1,778	62,106	165	110,252	925	50,010	382	184,372	306
제주	287,337	864	197,049	643	31,124	111	532	2	58,632	108

<부표 II-4>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주체별 시설면적 현황

구분	계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계	2,670,216	676,693	786,996	248,567	269,019	84,845	546,147	11,658	46,291
작목반	793,242	112	167,311	115,917	116,414	48,872	339,457	4,829	330
영농법인	525,904	237,123	109,048	59,688	18,584	8,097	90,907	1,467	990
회원농협	598,154	337,624	54,451	41,627	34,479	840	95,810	2,919	30,404
지자체(농협)	119,803	57,821	10,126	11,932	13,800	92	10,667	798	14,567
지자체(법인)	38,513	32,145	2,460	1,993	1,234	78	603	0	0
기타	594,600	11,868	443,600	17,410	84,508	26,866	8,703	1,645	0

<부표 II-5> 산지유통시설의 지역별 평균시설면적 현황

구분	평균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경매식집하장
평균	140	2,135	54	423	314	143	271	182	1,780
부산	264	1,076	71	-	-	-	217	-	-
대구	374	1,104	413	-	-	-	275	-	-
인천	19	-	19	-	-	-	-	-	-
광주	136	827	36	465	397	165	645	-	-
대전	123	1,704	54	-	-	-	198	-	-
울산	232	2,549	66	514	275	71	1,034	-	-
경기	98	2,743	68	296	163	88	206	468	66
강원	85	1,306	29	191	261	4,915	201	174	4,982
충북	111	1,839	60	203	365	101	185	126	0
충남	147	1,563	38	362	276	149	218	390	2,434
전북	104	2,445	46	365	251	61	237	-	1,156
전남	143	3,017	30	1,109	333	30	440	154	18,416
경북	123	2,012	60	389	456	37	313	73	1,129
경남	239	2,548	125	440	396	133	330	93	657
제주	334	1,428	283	306	307	266	378	-	-

<부표 II-6>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주체별 평균시설면적 현황

구분	평균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경매식집하장
평균	140	2,135	54	423	314	143	271	182	1,780
작목반	154	112	65	341	271	189	226	134	165
영농법인	602	2,156	277	686	395	261	457	293	990
회원농협	833	1,998	403	434	704	140	394	417	2,339
지자체(농협)	809	2,628	362	442	531	92	333	399	1,457
지자체(법인)	584	3,572	55	1,993	411	13	302	-	-
기타	49	1,978	39	484	280	92	242	118	-

<부표 II-7> 산지유통시설의 제주지역 운영주체별 설치현황

구분	계	작목반 영농회	영농 법인	농협	지자체 (농협)	지자체 (법인)	기타
계	864	428	36	49	26	4	321
서귀 포시	519	272	15	5	26	4	197
제주시	345	156	21	44	-	-	124

<부표 II-8> 산지유통시설의 제주지역 유통시설별 설치현황

구분	계	간이 집하 장	개량 저장 고	경매 식집 하장	산지유 통센터	선별장	예냉 시설	저온 저장고	집하 장	청과물 종합시 설	청과물 종합처 리장
계	864	91	-	-	16	623	2	111	20	-	-
서귀 포시	519	64	-	-	8	410	-	36	1	-	-
제주시	345	27	-	-	8	213	2	75	19	-	-

<부표 II-9> 산지유통시설의 제주지역 시설내역별 면적

구분	계	집하장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기 타 시 설
계	287,337	197,049	31,124	532	58,632
서귀포시	162,440	118,776	10,250	-	33,414
제주시	124,897	78,273	20,874	532	25,218

### 3.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추진

'04년 4월 한·칠레 FTA가 체결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과수산업의 지원을 마련하였는데, '04~'10년(7년간)까지 총 1조 2천억원의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FTA, DD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HUB)기능을 수행할 인프라 시설로 거점APC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년까지 권역별로 총 20~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sup>47)</sup>

<부표 II-10> 기존APC와 거점APC의 개념 비교<sup>1)</sup>

구 분	기존 산지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규모(자본)	10억원 정도 이하	100억~200억원 정도
시설면적(면적)	200~300평 이하	최소 2,000평 이상
연간처리량	4,000톤 이하	1~2만톤 이상/1일 200톤
사업주체	지역농협 및 전문품목조합	전문품목조합, 농협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및 지원 여부 의사결정방식	중앙정부의 품목, 지역배분방식에 의한 지역·품목안배, 하향식, 타율적 의사결정방식	지방정부의 설립계획서 제출 후 사업평가 후 예산지원되는 경쟁적, 상향식, 자율적 의사결정 방식
운영방식	조합장 위주의 자체경영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채산제 및 책임경영
시장교섭력 정도	약 함	강 함
안정성 및 위생	취 약	강 화
상품수집방식	개별농가단위	농가와 APC간의 출하계약 (membership)
품질관리방식	크기, 중량 등 생산자중심의 기본관리	신선도, 당도, 산도, 안전성 등 소비자 중심의 종합관리
정산관리방식	개 별 정 산	공 동 계 산
정보화	단순 수기위주의 방식	이력추적관리제도, 경영정보시스템 등 도입
선별결과 등의 생산부문과의 연계	단순정산시 기초자료	선별결과와 농가로의 Feed Back 으로 농가간 경쟁유도로 품질향상과 자율적 구조조정

주 1) 고성보, 강동일, 강지용 『산지유통센터 경제분석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22

47) 농림부 과수화훼과, 『'07년도 FTA기금 거점APC 사업추진 관계자 워크샵』 2007, p5

<부표 II-11> 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APC)설치현황<sup>1)</sup> (단위 : m<sup>2</sup>, 톤, 백만원)

No	연도	사업주체	유형	사업비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저온창고		연간처 리능력	선별기					브랜드	설계 회사	시공 회사	사업추진현황 (07.10월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계			면적 (채적)	지장 능력		방식	제조사	라인	능력 (1일)	금액				
1	'04	전북장수 (S-APC)	공공 (신규)	8,773	8,773	-	17,546	34,641	10,311	1,359 (10,870m <sup>2</sup> ) CA360 (2,880m <sup>2</sup> )	1,284 340	19,980	유럽식	유니텍	4조	80톤	33억	산드림	길건축	성우 건설	'06.9.15준공 '06.7월중순가동
		경남 밀양 (얼음골마케 팅사업단)	일반 (보완)	1,080	720	1,800	3,600	11,888	6,559	1,586 (10,182m <sup>2</sup> )	960	4,000	유럽식	컴팩마 프로다	2조	22	14억	얼음골	바우 설계	서창 건설	'06.11.7준공
3	'05	경기안성 (안성공동)	공공 (증설)	3,485	3,485	-	12,170	29,497	8,242	1,643 (5,502m <sup>2</sup> )	1500	12,500	일본식	한성	4조	38.4	35억	안성마춤	진우 설계	동원 건설	'06.4.25준공 '06.9.15가동개시
4		남제주군 (제주감협)	일반 (신규)	1,800	3,000	1,200	6,000	27,686	7,587	-	-	20,000	유럽식	유니텍	8조	100	44억	블로초 플랫폼원	예림 건축	대도 건설	'06.11.22준공
5		경북영주 (경북능금)	공공 (신규)	8,895	8,895	-	17,790	28,945	11,451	2,476 (17,332m <sup>2</sup> )	1500	20,000	일본식	SI정공	3조	72	48억	선비숨결 썬플러스	현대 ENG	승창 산업	'07.11.7준공 ◦ 착공:'06.11월 ◦ 완공:'07.11월
6		경북의성 (의성공동)	공공 (신규)	7,500	7,500	-	15,000	22,942	7,187	1,530 (10,710m <sup>2</sup> )	1500	20,000	유럽식	유니텍	2조	80	39	의성옥	현대 ENG	대은중 합건설	◦ 건축공사중 ◦ 착공:'06.12월 ◦ 완공:'08.9월
7		충북충주 (충북원협)	공공 (신규)	8,460	8,460	-	16,920	29,956	10,347	1,653 (13224m <sup>2</sup> ) CA364 (2912m <sup>2</sup> )	960 240	13,000	일본식	오미	2조	50	47억	토옥	휴먼텍 코리아	휴먼텍 코리아	◦ 시공업체선정 (07.10월) ◦ 착공:'07.12월 ◦ 완공:'08.9월
8	'06	경남거창 (NH유통)	공공 (신규)	7,750	7,750	-	15,500	40,319	7,740	1620 (11,826m <sup>2</sup> )	1,300	14,000	미정 일본식	미정	2조	50	미정 46억	미정	미정	미정	◦ 탄키입찰중 ◦ 착공:'08.2월 ◦ 완공:'08.10월

No	연도	사업주체	유형	사업비				부지면적	건축면적	지은참고		연간처리능력	선별기					브랜드	설계회사	시공회사	사업추진현황 (07.10월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계			면적 (채적)	저장 능력		방식	제조사	라인	능력 (1일)	금액				
9		충남예산 (예산능금)	공공 (신규)	7,491	7,491	-	14,982	25,100	8,032	1,890 (10,530m <sup>2</sup> )	1,180	15,000	일본식	SI정공	3조	50	45억	으뜨미야	현대 ENG	현대 ENG	◦ 실시설계완료 ◦ 착공 : '07.11월 ◦ 완공: '08.8월
10		충북음성 (햇사레공동)	공공 (신규)	7,560	7,560	-	15,120	52,086	9,696	1,522 (8,860m <sup>2</sup> )	1,115	25,000	일본식 프리 트레이	오미 (국내)	2조	50	미정 70억	햇사레 다올찬	대우 ENG	대우 ENG	◦ 수의계약중 ◦ 착공: '07.11월 ◦ 완공: '08.9월
11		전남나주 (나주배공동)	공공 (신규)	9,000	9,000	-	18,000	14,942	10,721	2,050 (14,347m <sup>2</sup> )	1,800	18,000	미정 일본식	미정	2조	80	미정 48억	청미레 비단고을	현대 ENG	미정	◦ 감리선정 입찰중 ◦ 착공: '07.12월 ◦ 완공: '08.10월
12		제주 (제주감협)	일반 (신규)	3,600	7,200	1,200	12,000	19,584	7,768	-	-	20,000	미정 일본식	미정	8조	100	미정 61억	블로초 플립원	미정	미정	◦ 기본계획수립중 ◦ 착공: '08.3월 ◦ 준공: '08.10월
13		제주 (제주공동)	일반 (신규)	3,748	7,496	1,249	12,493	24,252	8,595	496 (2,500m <sup>2</sup> )	300	20,000	미정 일본식	미정	8조	100	미정 56억	한라라이	다우 건축	미정	◦ 기본계획수립중 ◦ 착공: '07.12월 ◦ 준공: '08.12월
14	'07	경북문경 (경북능금)	공공 (신규)	7,471.5	7,471.5	-	14,943	29,950	10,073	1,865 (13,051m <sup>2</sup> )	1,700	15,000	미정 일본식	미정	2조	50	미정 50억	레드원	미정	미정	◦ 기본계획수립중 ◦ 착공: '07.12월 ◦ 준공: '08.12월
15		전남순천 (순천공동)	공공 (신규)	6,362	6,362	-	12,724	10,000	9,025	1,990 (9,355m <sup>2</sup> )	1,250	13,500	미정 일본식	미정	3조	40	미정 28억	순천미인	미정	미정	◦ 입찰안내서작성 ◦ 착공: '08.5월 ◦ 준공: '09.8월
계		15개소		92,975.5	101,163.5	5,449	204,788														

주 1) 농림부 과수화훼과 『 '07년도 FTA기금 거점APC 사업추진 관계자 워크샵』 2007. p64